

ISBN 979-11-969554-3-4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since 192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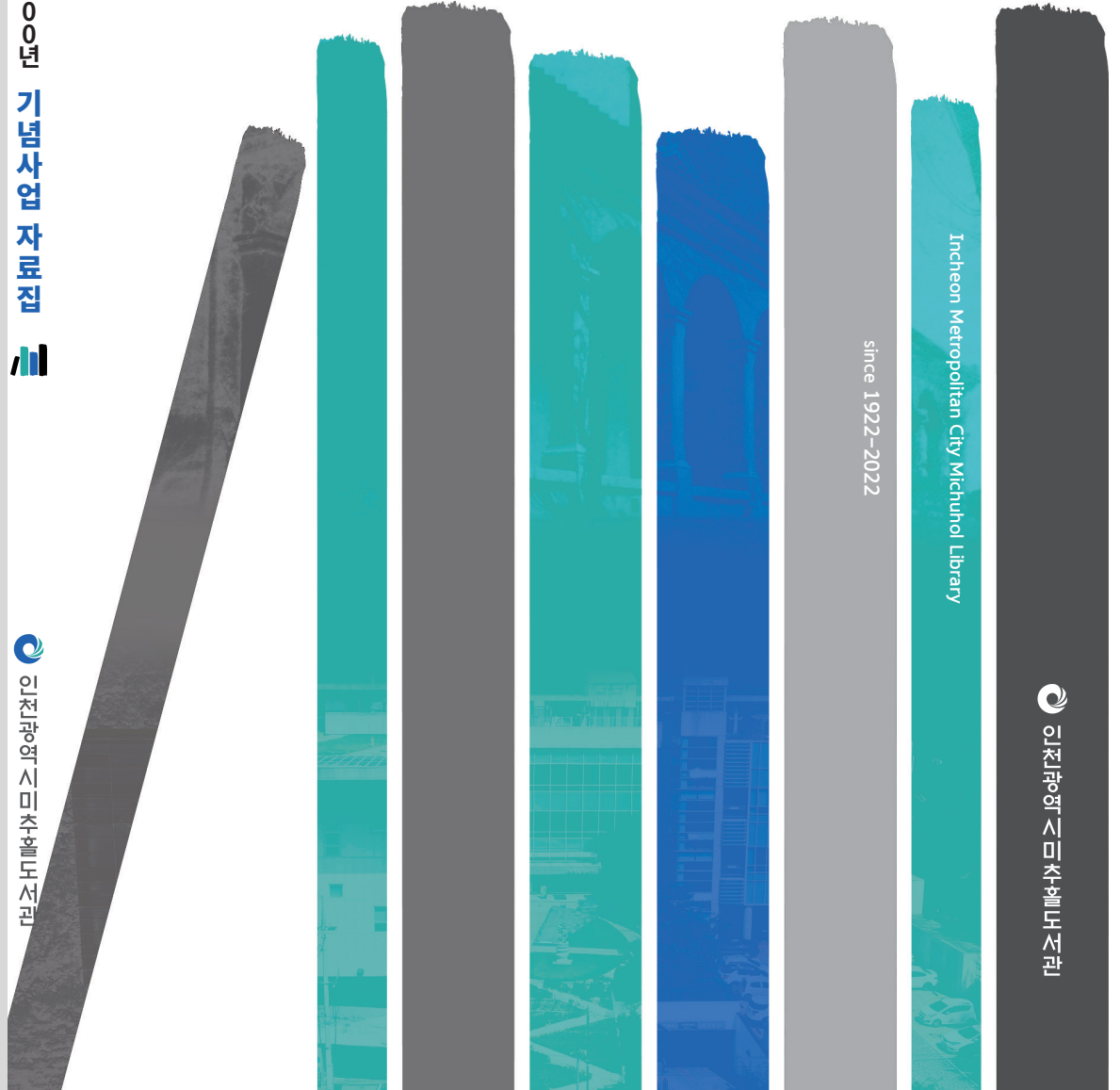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since 1922-2022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9 791196 955434

ISBN 979-11-96955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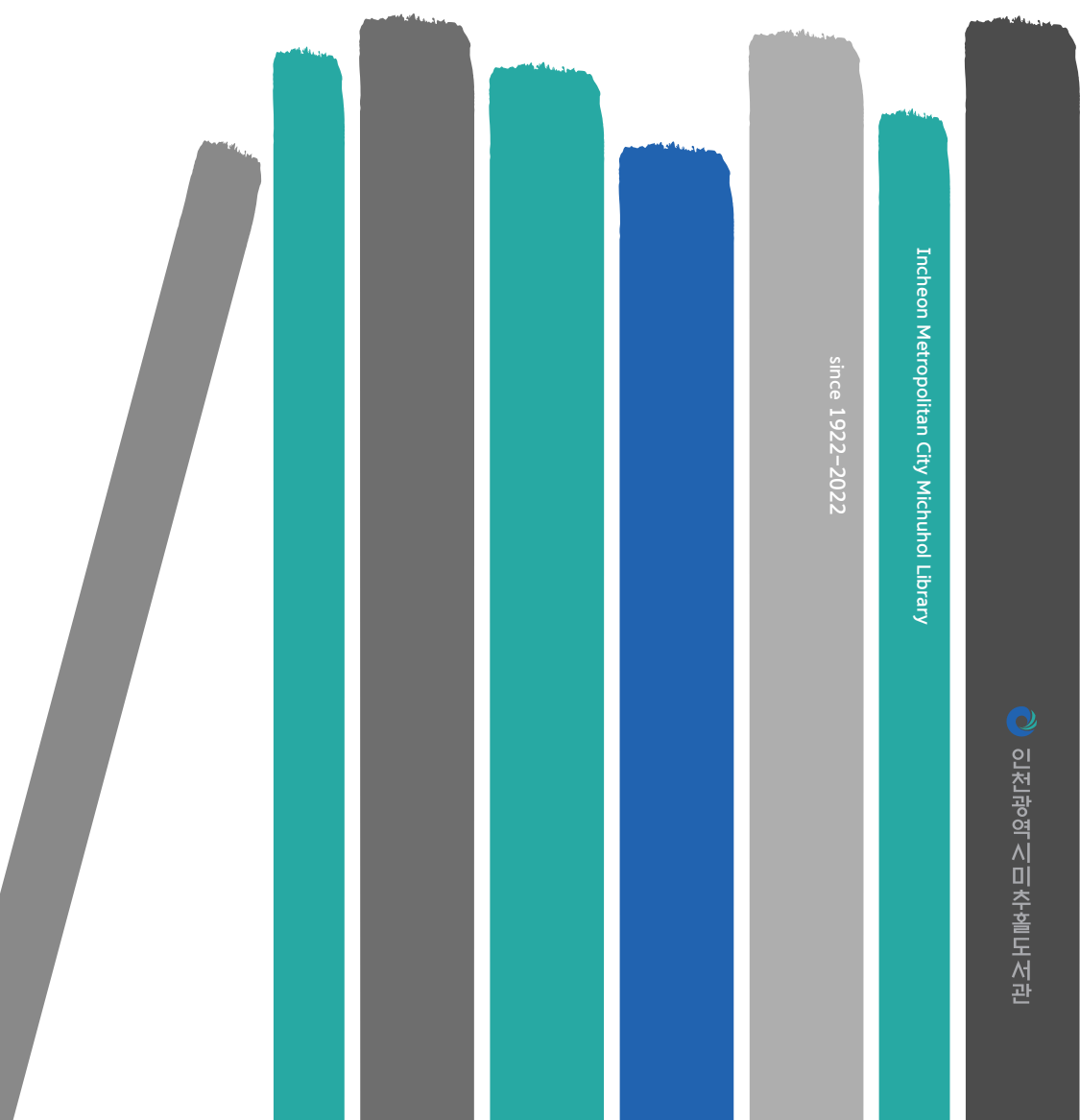
비매품/무료
03020

ISBN 979-11-969554-3-4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since 1922-2022



since 1922-2022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202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100년의 해입니다



「100년의 多讀임, 희망의 두드림」

기념행사	2022.1.6.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식 제막식
	2021.12.20.-2022.1.27.	특별전시 '100년의 도서, 시대를 읽다'
	2022.1.-12.	100인이 추천하는 책 '100인의 서재'
약속행사	2022.7.	정책포럼 '인천시 공공도서관 100년 회고와 전망'
문화행사	인천시 공공도서관 인증운영	공인 및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체험행사 등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CONTENTS

I

미추홀도서관 연혁	6
미추홀도서관 100년 슬로건 선정	13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식 제막식	14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16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정책포럼	24

II

100년 특별 전시	28
시민참여 이벤트	74

III

참고자료	92
------------	----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since 1922-2022



미추홀도서관 연혁

미추홀도서관 100년 슬로건 선정

기념식 제막식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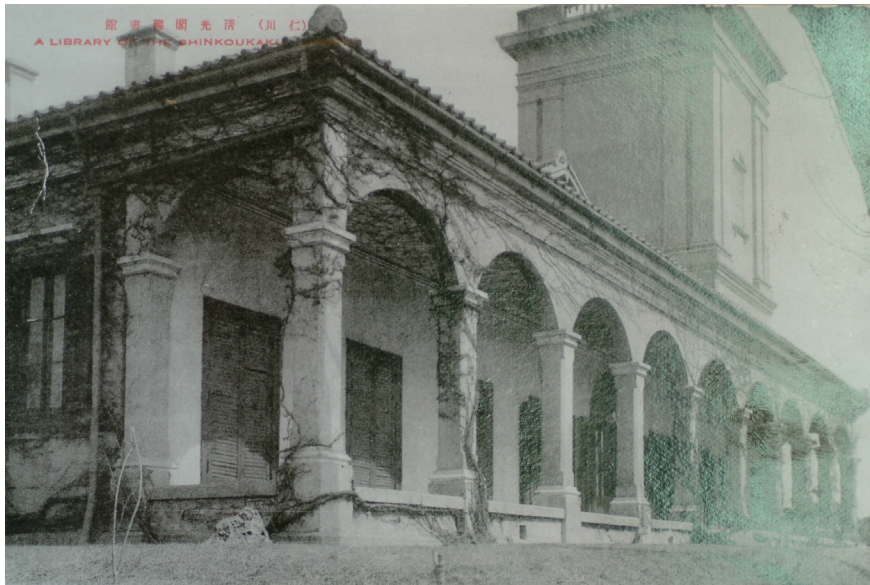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since 192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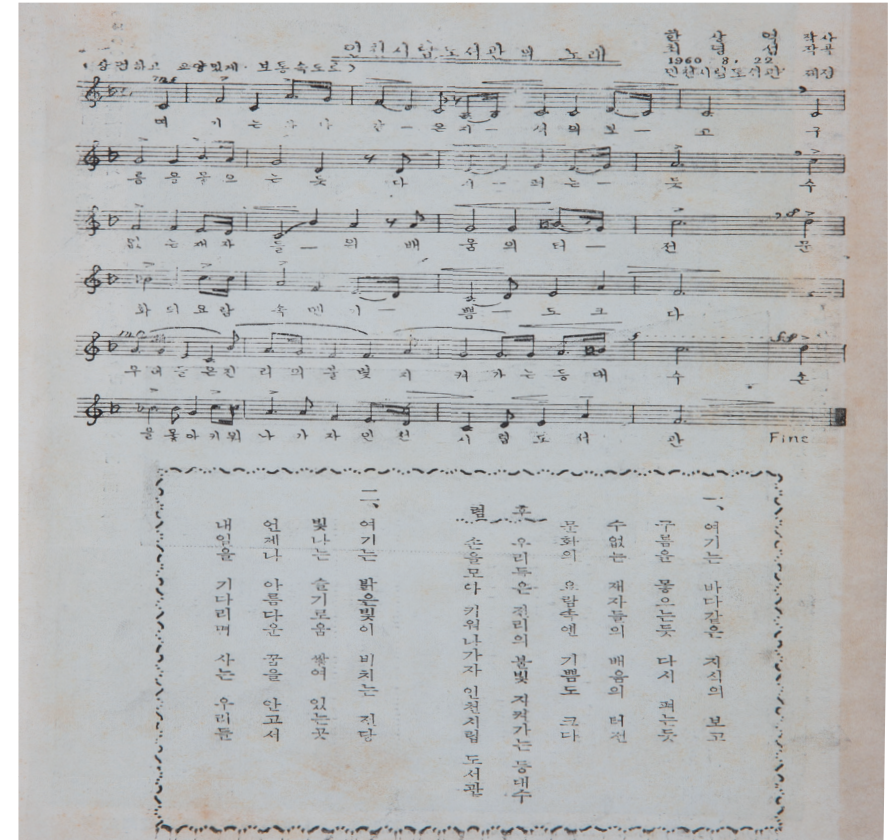


미추홀도서관 연혁

1922년 1월 6일 미추홀도서관의 모태 인천부립도서관(仁川府立圖書館)이 문을 열었다. 송학동 1가 1번지, 지금의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자리에 있던 ‘청광각(淸光閣)’을 인천부가 매입하여 그 안에 인천부립도서관을 설치하였다. 설비비 31,000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장서 900권으로 무료 도서관 운영을 시작하였다. 부산, 대구,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 공공도서관 개관이었다.



| 청광각



| 인천시립도서관의 노래

[전국 공공도서관 개관연도]

NO.	개관 당시 도서관명	현재 도서관명	개관연도
1	동래부립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1901년 10월 10일
2	대구부립도서관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1919년 8월 10일
3	경성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1920년 11월 5일
4	인천부립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1922년 1월 6일
5	경성부립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1922년 10월 5일

청광각 도서관을 인천향토관으로 전용하게 됨에 따라 1941년 4월 10일 인천 부립도서관을 신흥동으로 이전하였다. 이어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자유를 맞이하였으나 새로운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혼란 속에서 8월 16일부터 도서관을 휴관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혼란 속에서 장기휴관을 반복하다가 최성진 관장의 노력으로 도서관 사업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46년 12월 3일 울목동 242번지 건물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이전 및 재개관하였다. 신흥동 관사보다 면적은 작았지만 원시가지의 중심부이자 울목공원 정상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풍광이 아름다웠다.



| 인천시립도서관 본관



| 인천시립도서관 정문



| 인천시립도서관 별관(아동자료실)

1947년 4월 1일 조선도서관협회에 가입하고, 광복 이후 출판된 양서의 전면적인 수집, 일본분류법과 편목법의 폐지와 '한국십진분류법'과 편목법에 의한 장서의 재정리, 예산의 확보와 관사 개·보수, 도서관 규칙 및 규정의 제정, 무선전신국에 의한 도서관 청사 점용 반대운동 등 활기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1949년 8월 15일 인천시 시제(市制) 개편으로 인천시립도서관(仁川市立圖書館)으로 개칭되었다.

인천시립도서관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무기 휴관을 하다가 1951년 10월 1일 재개관하였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당시 이경성 시립박물관장이 두 차례 도서관장을 겸하여 전쟁 후 실태조사 및 복구, 광복 이전의 장서까지 한국십진분류표로 재정비하는 등 총체적인 장서정리에 힘을 쏟았다.

[인천시립도서관 설치조례]

- 인천시립도서관 설치조례 -

[서기1958년 11월 6일 인천시 조례 제207호]

제1조 도서기록류, 기타 문화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시민의 열람이용에 공함과 아울러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인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칭한다)을 둔다.

제2조 도서관은 인천시 울목동 242번지에 둔다.

제3조 시장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
분관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54년 6월 14일, 12대 관장으로 서예가이자 향토문화계 인사인 장인식 씨가 임명되었다.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도서관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도서관 전문직으로서의 지식과 최신기술을 겸비하였으며 훗날 공공도서관으로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도서구입 확대와 체계적인 도서정리, 정기간행물 비치 확대에 이어 1958년 8월 12일 개가식 참고열람실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1958년 11월 인천시립도서관 설치조례에 이어 1959년 7월 인천시립도서관 직제가 제정되었으며, 1959년 12월에는 도서관 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도서관 열람규칙이 재제정되어 도서관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갔다.

1962년 9월 15일 인천시립도서관 구관의 일부를 현대식으로 재건축하고 2층 신관(문화센터)을 구관 옆에 열었다.

인천시립도서관은 1982년 부평도서관이 개관하기까지 인천시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시민의 곁을 지켰다. 1991년 5월 도서목록의 전산화가 시작되었고, 1994년 5월 관외대출을 확대 실시하여 좀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울목동에서 지역 주민의 곁을 지켜온 시립도서관이 2008년 인천광역시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규모와 조직을 확장하여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하며 현재의 미추홀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창립, 인천시 북스타트·과제지원센터 사업 추진, 체계적인 사서 직무교육 등 지역대표도서관의 틀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 대상의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의 벗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2013년에 송도국제기구도서관, 2015년에 청라호수, 청라국제, 영종하늘도서관, 2019년에 마전도서관을 분관으로 개관하였다.



| 미추홀도서관 전경



미추홀도서관 100년 공식 슬로건 선정

미추홀도서관 100년 맞이 선행사업으로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하였다. 시민들의 지식과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 향후 100년간 미추홀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비전 및 발전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문구를 공모하였으며, 총 350건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었다. 응모작 중 1차 위원 추천, 2차 심의위원회 서면심사, 3차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11편이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100년 제막식에 시상하였다.

시민과 함께한 도서관의 100년을 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지향하고자 진행된 공모에서 선정된 공식 슬로건은 “100년의 多讀임, 희망의 두드림”으로 개관 기념 연계 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되었다.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석 제막식

100년 기념석은 전도진 서예가의 붓글씨 작업으로 각인하여 2021. 12. 31. 미추홀도서관 화단에 설치하였다.

2022년 1월 6일 미추홀도서관 슬로건 “100년의 多讀임, 희망의 두드림”을 발표하고 기념석 제막식을 개최하였으며 타임캡슐 매설도 함께 진행하였다.

식후 행사로 트루베르의 시를 노래하는 공연과 역사교사 최태성 작가의 “조선 시대 다독 시인 백곡 김득신의 삶” 강연으로 마무리하였다.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3호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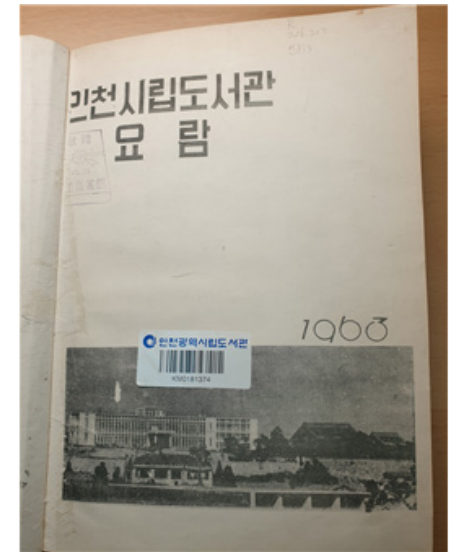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을 기념하여 인천광역시가 인천역사문화총서 연계 사업으로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을 발행하였다. 미추홀도서관이 소장 중인 『관지(館誌, 1961)』와 『인천시립도서관 요람(仁川市立圖書館要覽, 1963)』의 운문·복간하여 발행하였다.

『관지(館誌, 1961)』는 인천부립도서관 개관 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관지』 창간호이다. 사서실(司書室)에서 풀어 쓴 「인천시립도서관 40년사」와



| 관지, 1961

| 인천시립도서관 요람,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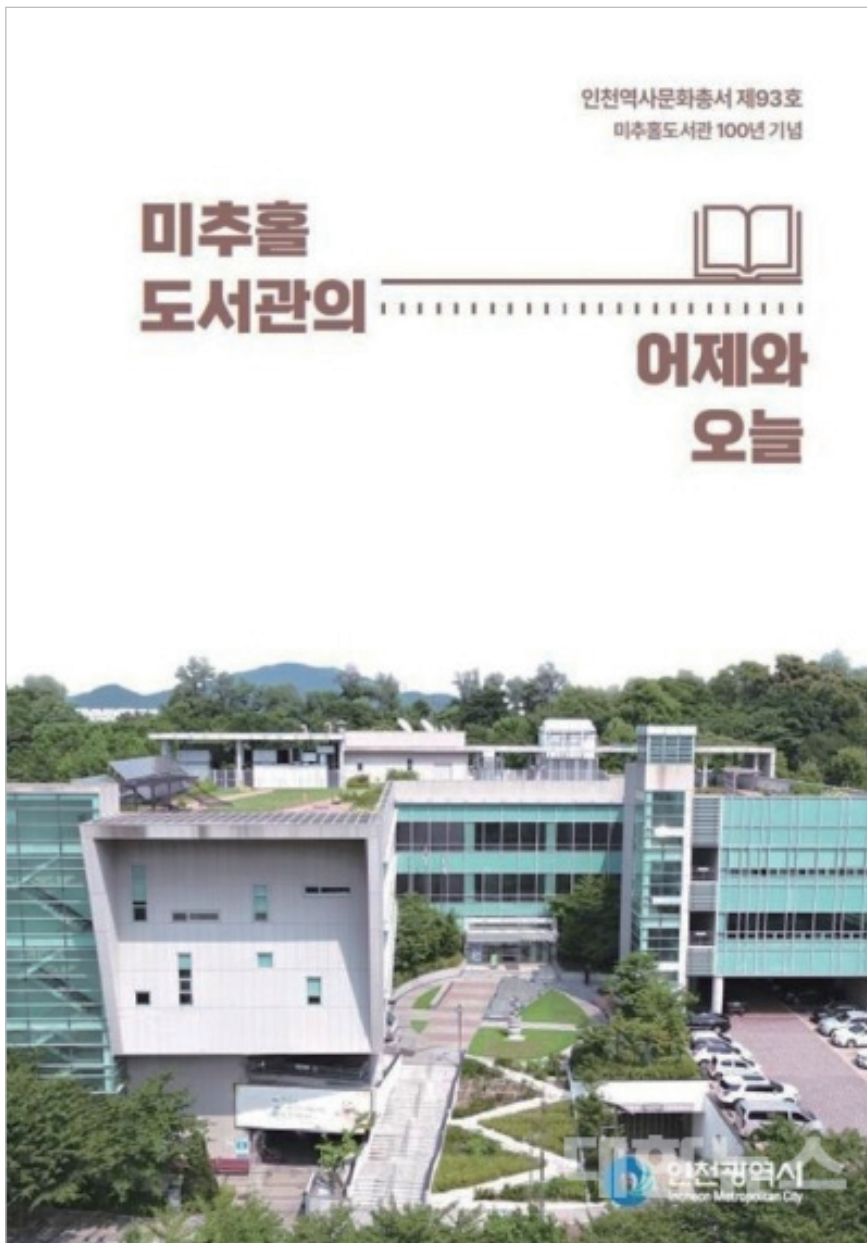


도서관 주요일지를 통해 1921년부터 1961년까지 40년간의 인천시립도서관의 역사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인천의 학교도서관 운동’,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세목표’ 등 인천의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당대 사서들이 고민을 담고 있으며 당시의 이용규칙, 장서통계, 조직현황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근대 인천 도서관의 역사를 총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963년 발간한 『인천시립도서관 요람』은 시립도서관의 옛 모습이 상세히 소개된 책으로 자료를 열람하는 이용자 모습, 발간사, 도서관의 구조, 연혁, 이용규칙, 자료실별 자료현황, 카드형 목록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은 『관지, 1961』와 『인천시립도서관 요람, 1963』 자료와 함께 옛 신문기사로 보는 도서관 연표, 사진으로 보는 도서관 역사, 역대 도서관장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표지

목차	
1. 발간사·축간사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일러두기	
2. 「관지(1961)」·「인천시립도서관요람(1963)」	
관지	14
인천시립도서관요람	355
3. 기억과 회상	429
인천부립도서관의 탄생과 이전	430
옛 신문기사로 보는 도서관 연표	440
기억 속의 옛 시립도서관	495
4. 인천부립도서관에서 미추홀도서관으로	516
사진으로 보는 도서관 역사	518
· 설립 ~ 울목동 시절	
· 1990년 이후 ~ 이전 직전	
· 도서관 신축 공사, 이사 및 2009년 이전 개관	
· 미추홀도서관의 2009년 이후 ~ 2021년 현재	
· 미추홀도서관 분관 현황	
연표로 보는 도서관 역사	553
역대 도서관장 명단	560
기념사(미추홀도서관장)	564

|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목차

창간사

관장 장인식 張仁植

회고하건대 본 도서관은 4254년(1921) 11월 1일에 창설, 익년 1월 6일에 최초의 개관을 본 이래 약 40년을 경과하였다. 창관(創館) 당년의 인천시는 인구 겨우 40,800여라는 소도시에 지나지 않았었고 본 도서관은 역시 4256년(1923) 말 현재에 900책, 등관자(登館者) 1,791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서관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시(當時)는 전시(全示) 인구에서 10배로 증가하여 40만을 산(算)하게 된 국내 제2의 항도요 남한 제4의 대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도 서울의 관문으로 도내의 수도로서 정치, 외교, 군사, 행정, 산업, 교통, 통신, 금융, 교육, 문화 등 제 분야에 걸쳐 팔목할만한 발전을 보았으며 일례로 교육기관만 보더라도 초등이 30교, 중등이 15교, 고등이 15교, 대학의 1교가 그것이다. 이러한 도시 발전도에 비해 도리어 도서관은 그것에 반비례해 왔으니 40만 인구가 18,000여 장서에 한껏 150명 내외를 수용할 정도의 초라한 목조 도서관을 가졌다는 기막힌 현실이 바로 그것으로 이것은 1책 당 20여 명이 매달린 꼴이며 또한 그 장서는 거의 무용에 가까운 낡은 일서(日書)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심상이다.

8.15 해방까지 이 도서관도 일제의 식민정책 밑에서 역시 일인(日人) 관장들에 의해 경영되어 왔는데 범위와 규모가 몹시 작았음은 물론 고식적인 운영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네 손으로 움직여온 이 도서관의 꼴은 그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우리 사회의 후진성에서 온 것이라면 과언일까. 물론 그동안에는 기다(幾多)한 변천, 특히 6.25동란 같은 세기적인 비극이 입힌 피해가 있었기도 하였으며, 선각과 그리고

관지_창간사 33

인천시립도서관 40년사

사서실 역술 釋術

중요 목차

1. 서언
2. 제1기 시대
3. 제2기 시대
4. 제3기 시대
5. 현 장(張) 관장 취임 이후
6. 결언

서언 序言

시민의 지식 향상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지향하고 인천시립도서관이 이 고장에 탄생된 지도 어느덧 올해로써 관령(觀曆) 40(만 39주)을 헤아리게 되었다. 상상하건대 춘풍추우 40성상이라는 허구한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의 이 도서관의 동정과 표리에는 허다한 사적(事蹟)과 그리고 시비와 희비에 대한 사연이 퇴적되어 왔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자신의 성장과 영양을 위한 투쟁과 발버둥질도 있었을 것이며, 기아를 면키 위한 경륜과 사업과 봉사 위한 투쟁과 희생도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40년이라는 시대 속에는 미개한 두뇌들이 지배하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무지하거나 무성의한 당국자, 무능한 관리자, 나태한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세월도 있었을 것이며, 혹은 풍부한 지성과 번뜩이는 예지들에 의해서 시책되고 조직되고 관리되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날의 현상들은 이미 표

관지_인천시립도서관 40년사 37

인천시립도서관의 전망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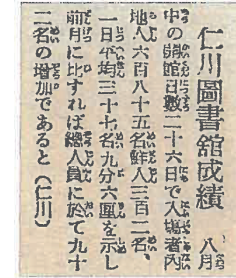
▲ 현황

본 도서관의 대지는 1,128평[㎡] 1층이며, 건물은 연건평 158평 3층^수 6작^차에 불과한 목조와^{木造瓦葺} 2층 건물으로서, 광복 이전에 일인^{日人} 별장이던 것을 일부 개조충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 본래의 건축 구조, 규모 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봉사 기능의 발휘와 사업 목적의 달성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한편, 이용자에게 주는 바 불편도 적지 않다. 다만 환경, 위치, 교통 등 면에서 볼 때에는 유리한 점도 있으나, 관사가 워낙 협착한 탓으로 1일 등관자 4~500명을 헤아릴 정도로 날로 격증하는 이용자를 모두 수용치 못하고, 그중 2~300명은 아깝게도 되돌려 보내야 할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건물 하층에는 대출실 겸 정리실, 열람용 목록실, 참고도서실, 성인실, 학생실, 여자실, 신문실, 관장실, 서무실, 탈화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층은 전부 서고로 충당하고 있다. 이밖에 미복구 중인 아동열람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서고에는 약 20,000책의 장서를 수용하고 있다. 열람석 총수는 130석밖에 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일 초만원에 이르고 있는 열람자 수는 일평균 최소 130인 최다 250인을 넘을 수가 없는 형편으로 연간 이용자 총수는 평균 25,000 이상 40,000 내외가 될 수밖에 없다. 개관일 수는 년에 290일 내외이며, 열람도서는 10,000 내지 30,000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본 관 장서의 빈약성을 솔직히 말해 주고 있다. 종사원은 정규직원 2명(사서직 1, 사무직 1) 임시직 4명, 정규고원 2명, 총 9인이며, 연간예산은 4287년도에 약 200만 환에서 출발하여 4293년도에 약 900만 환 선에 도달하고 있다. 본 도서관의 다른 부면도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 규모에 비해 미약하기 짝이 없으나, 연년 증송^送일로^累에^一층에^一 있는 호현상이다. 인천시민의 담세력^擔은^一 지극히 미약

1924. 09. 09. 『경성일보』

인천도서관성적

8월 중 개관일 수 26일에서 입장자는 내지인 685명, 조선인 302명이고 1일 평균 37명으로 9분 6리를 보인다. 전월에 비해 총인원은 92명이 증가하였다.



1924. 10. 10. 『매일신보』

인천 독서추세

인천부립도서관 9월 중 성적은 개관일 수 24일간에 등관^登인원 조선인 314명, 내지인 남성 630명, 여자 2명, 계 946명인바 전월에 비하면 41명 감소하였다. 그리고 도서이용자는 조선인 203명, 내지인 379명, 계 582명이며 남은 364명은 신문 잡지 또는 지참도서의 이용자이다. 다시 도서이용자의 직업별을 보면 학생 348명이 필두로 상업 100명, 무직자 105명이 주요한 자이며 관공서 관리, 은행회사원은 35명이며 교육가는 1명인바 도서이용분류는 의연 문학이 과반이라더라.

1924. 10. 11. 『조선일보』

인천도서관 9월 중의 성적

인천도서관의 지난 9월 중 성적은 내관자 조선인 314명, 일본인 632명, 합계 946명인데 전월에 비하면 41명이 감소하였다고 하며 도서 중별은 문학, 어학, 이수학, 잡지 등이 가장 많다고 하며 내관자의 직업별은 아래와 같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정책포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 도서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시 도서관정책과에서 2022년 7월 14일 정책포럼 “공공도서관 100년의 회고와 전망”을 개최하였다.

인천대학교 박종도 교수의 사회로 한국도서관협회 남영준 회장의 ‘리터러시: 구슬이 서말이라도’, 인천대학교 오용섭 교수의 ‘미추홀도서관의 역사와 소장 자료의 가치’, 중앙대학교 이승민 교수의 ‘미래도서관: 광풍인가? 신기루인가? 현실인가?’, 인천대학교 김규환 교수의 ‘미래도서관 공간을 고민하다 - 새로운 3D 가상공간으로 확장 및 혁신’을 발제로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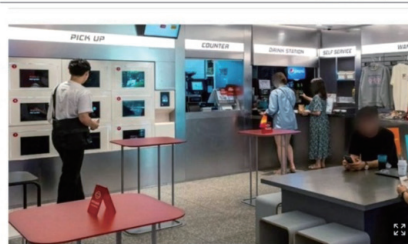


백년의 多讀임. 희망의 두드림
인천광역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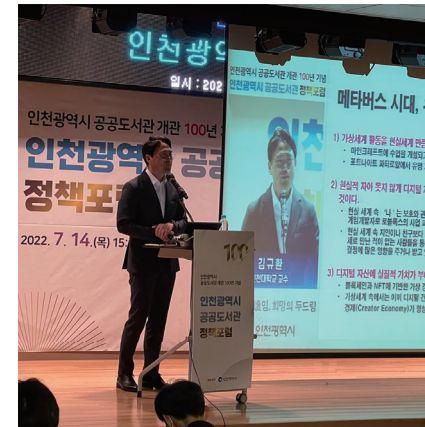
도태, 생존

朝鮮日報



서울 마포구 동교동 L7 호텔에 있는 롯데리아. 사람 없이 커스텀만 있고, 영어 안내판밖에 없어 'No(No) 노언론'이라 불린다. / 이진승 영상미디어 기자

“디스 플로어 이즈 더 퍼스트 플로어(이 층은 1층입니다).”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since 1922-2022



100년 특별 전시
시민참여 이벤트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since 1922-2022



개관 100년 특별 전시

미추홀도서관 100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개의 기획전시와 100인의 서재 코너로 진행하였다.

100년의 기록, 인천의 역사가 되다!

2020년 7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미추홀도서관 어울림터와 1층 로비에서 진행하고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상영한 “100년의 자료 수집, 인천의 역사가 되다!”는 인천의 역사와 인천광역시립도서관의 역사, 미추홀도서관 소장 귀중서와 희귀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천의 역사 부분에는 인천의 역사와 발전, 인천광역시 의회 자료, 인천항 및 군·구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인천부읍지, 인천부세일반, 인천석금, 개항과 양관 역정, 부평향교지 속간, 통계연보 등 23권으로 전시하였다.

인천시립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관지(인천시립도서관지) 창간호, 인천시립도서관 정리업무 관련 자료와 귀중자료로 대중일보(1945-1950), 순종국장록 등 21권으로 전시하였다.

I 인천의 역사

< 인천의 변화와 발전 >

인천의 옛 명칭은 백제의 비류가 이곳에 정착하여 미추홀이라 부른 것이 연원이었고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북부,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영토로 변천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수주, 인주, 경원부 순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조선 초기에 인주로 복귀되었다가 태종 13년에 이르러 비로소 인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인천지명고(仁川地名考) / 이훈익(李薰益) 저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3년

유물대 1

1.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 1931년경

미추홀도서관에 소장된 「인천부읍지」는 기존의 인천의 읍지를 참고하여 일제시기인 1931년경 또는 그 이전에 만든 것이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인천부읍지」는 이 책 외에도 규장각 5종, 한국학 중앙연구원 2종, 국사편찬위원회 1종 등이 있는데 이 책이 가장 후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책머리에는 ‘인천부산천총도(仁川府山川總圖)’라는 제목의 채색 지도가 있고 끝에는 ‘인천부내도 쇼와육년현재(仁川府內圖 昭和六年現在)’라는 제목으로 등고선까지 있는 현대식 인쇄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현대식 지도의 간행연도로 보아 이 책은 1931년 전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고서해제』, 2008년. 오용섭)

유물대 2

2. 인천부사(仁川府使) / 1933년

1883년부터 1933년까지의 역사서로 일본사람에 의해 일본의 시각에서 쓰여졌다. 개항 전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수탈당하고, 인천의 개항 지역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인천부사 완역본, 2004년)

인천부사 서문 중에서
서(序)

인천항은 명치 16년(1883년) 1월 1일에 개항에 들어가, 이래 그야말로 반세기를 경과했다. 개항 당시는 어떤 부락도 없고 일개 해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조선 내 제5의 대도시로서 인구 7만을 세는데 이르러, 조선 내 제2의 대 무역항으로서 무역 연액 1억 3천만 엔에 달하는 성황을 보이고, 조선 중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1대 해항이 되었다.

수년 전부터 금년 개항 50주년에 즈음하여 인천부 기념사업의 하나로서 발간할 계획을 세워 소화 6년(1931년)에 착수하여 1년 반의 세월을 소비하여 완성(1933년)한 것이다.

1933년 8월 인천부윤 송도청

유물대 3

3. 인천부세일반(仁川府勢一班) / 1938년경

강압적인 을사조약으로 들어선 통감부는 자신들의 성과를 외국에 내보이기 위해 해마다 조선의 제반 사항을 「통계연보」로 제작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총독부에서도 계속되었다. 부·군 등 지방 행정기관은 지역 사정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고, 총독부는 이것을 취합하여 출판한 것이다.

(『역주 인천부세일반(3)』,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2018.)

4. 인천시세일반(仁川市勢一班) / 1949년

「인천시세일반」은 표지에 '시(市)'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지에는 부분적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의 행정구역명인 '부(府)'가 그대로 남아 '인천부세일반'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인의 시각이 아닌 자국민의 시각으로 인천의 통계를 최초로 기록한 통계 관련 서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5. 시세일람(市勢一覽) / 1953년

1950년대 인천의 통계집이다. 6.25 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 간행되었다. 이 책의 권말부록에는 '전쟁피해복구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일반주택부터 시청사, 관공서 그리고 학교, 종교단체, 토목·항구·의료 시설 등의 피해 상황과 현재 복구상황, 복구율을 알 수 있다.

유물대 4

6. 대인천건설보(大仁川建設譜) / 1949년

이 책의 핵심은 발간사에 있다. 각 산업부문을 비롯하여 사계각층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 인천이 앞으로 실천할 기본 이념을 구상하고 연마하여 토론하고 비판하자는 것이 대인천건설보의 발간 취지이다.

7. 경기소개 / 1954년

「경기소개」는 1954년 발행된 책으로, 경기도에 속해 있던 '경기도 인천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행정구역상 구분을 예로 들어 보면 인천시는 동리수 99, 면적 166.27, 호수 52.085, 인구 266.914로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시였음을 알 수 있다.

유물대 5

8. 인천석금(仁川昔今) 고일 저 / 1955년

『인천석금』은 저자 고일이 인천의 근대화 과정에 관해 연재한 글을 모아 1955년에 편찬·발행한 단행본이다. 고일은 1954년 51세 “주간인천”의 주필로 재직하면서 1년간 “지면자(池面者, 못난놈)”란 필명으로 개항 초기부터 1950년대 초에 이르는 인천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발전상을 “인천석금”이라는 칼럼으로 연재하였다.

이 글들을 모아 책자로 펴낸 것이 바로 『인천석금』이며, 머릿말과 총 51편의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한 시대 삶의 흔적과 풍물을 통해 인천을 보여주면서 산문으로 쓴 '인천 찬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9. 인천의 안내(仁川의 案内), 유희강 저 / 1959년

인천의 지역 및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한 소책자이다. 건국 이후 신문화건설의 획기적인 단계에서 향토사연구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시하며, 조그마한 책자이지만 인천 관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후기에 기록되어 있다. 부록인 인천의 전설 편에는 지역별 유명한 전설들이 소개되어 있다.

유물대 6

10. 인천사진대관(仁川寫真大觀) / 1956년

1956년 발행된 자료로, 당시 인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집이다. 『인천사진대관』을 발행·편집한 이항은 마치는 글에서 “지방발전의 선양이라는 분에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엮어보자는 것이…” 라고 하여 인천의 발전과 자부심 함양이 책 발간의 의도와 동기임을 드러내고 있다.

유물대 7

11. 인천지명고(仁川地名考) 이훈익 저 / 1993년

1993년에 이훈익이 쓴 향토지이다. 『인천 지명고』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의 마을, 산, 구릉, 하천, 해안의 지명이 생기게 된 유래와 변천사를 수록했다. 인천의 고대 국가인 미추홀부터 인천직할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지리, 자연, 풍수의 지명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인천직할시의 상공업체 현황 및 행정 구역과 각 동의 변천 일람표가 있어 인천의 뿌리를 알고 인천사(仁川史)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인천광역시 의회 자료 >

8.15 광복 이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인천시로 정립되면서 1952년 시 의회를 구성하고 시장(市長)을 간선(揀選)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 바로 인천 지방자치의 시작이었다.

유물대 8

12. 자치의 표정(自治의 表情) / 1954년

1952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시행된 지방선거였다. 같은 해 4월 25일 12개 선거구에서 시행된 시 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28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경기도 인천

시 제1대 시의회가 성립되었다. 이 책에는 당시 의원들과 그들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권말에는 28명 의원들의 생년월일, 본적, 거주 동(洞) 등의 기본정보와 선거 당시 득표율을 수록하였다.

유물대 9

13. 인천직할시 의회활동(AFAK Projects Album) / 1955년

미 군사원조(AFAK) 프로그램의 각종 활동 모습을 엮어 놓은 사진첩이다. 1950년 6.25전쟁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의 "미군대한원조"(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AFAK) 사무국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 모습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기반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사진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사진첩 앞부분에는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과 미군의 주요 인사 사진이 있고 6.25 전쟁 직후 현실을 반영하는 도로, 교량, 경기장, 병원, 학교, 고아원 등의 증개축 및 신설과 관련한 프로젝트 진행 사진이 많다. 권말에는 프로젝트 참여 인사의 서명록이 수록되어 있다.

< 인천항 자료 >

개항과 양관역정 후기(後記)에서 일부 발췌

인천 개항 이래 76년!
손을 꼽지 않고도 그 연륜을 셈할 수 있도록 나이 어린 도시다.
그러나 치외법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지계제도(地界制度)를 발판으로 발육되어 온 인천의 과거는 유례없이 기구(崎嶇)하였다.
그러하였기에 오히려 애처로움을 금할 도리가 없다.
이제 그 저주의 자취를 새삼스레 더듬어서, 무슨 보람을 찾으리요마는 치욕적이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모르는 체할 수도 없으려니와 소리 없이 잃어져 가는 옛 형태를 차마 그대로 묵과하기가 너무도 아쉽기에 이미 오염화(烏有化) 사물이 아무것도 없이됨) 되었거나 혹은 산실될 우려가 많은 문헌과 구전을 우선 수록하느라 시도하였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책자가 되었으나, 서슴지 않고 이를 고향 인천에 바치려 한다.

1959년 5월말 최성연 씀

유물대 10

14. 개항 25년 기념사를 적음·씀(開港 25年 紀念辭 に序す) / 1908년

1883년 인천개항 25주년을 자축하기 위하여 '인천개항 25년 기념회'에서 기획하여 발간한 책이다.

15. 개항과 양관역정(開港과 洋館歷程), 최성연 저 / 1959년

1959년 최성연이 개항 이후 인천의 서양 건축물에 대해 쓴 단행본이다. 인천 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 서양 건물, 즉 양관(洋館)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1883년부터 1920년까지의 건물 혹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엮었으며, 소실되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문헌과 구전을 되도록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1950년대에 발간된 책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의 건축물을 상세히 설명한 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건축사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유물대 11

16.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 100년 / 1983년

17. 인천항변천사 /1995년

< 군·구 자료 >

군구의 역사와 향토문화, 인구 등 인천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울수 있는 자료들이다.

유물대 12

18. 부평향교지 속간(富平鄕校誌 續刊) / 1990년

이 책은 인천유형문화재 제12호인 부평향교에서 발행한 도서로, 공자의 평생의 행적을 표현한 '공부자성적도'의 해설이 실려 있고, 부록에는 역대 왕조의 연대표와 관직해설 등이 있다. (『두산백과』)

※ 부평향교 : 인천유형문화재 제12호인 부평향교는 조선시대 부평지역의 교육을 담당 하였던 관립학교이다. 부평의 진산인 계양산 아래에 향교가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인종 5년(1127)이다.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으로 건물이

소실되자 난후에 재건하였다. 학생들을 상대로 강학이 이루어지던 곳인 명륜당과 유학생들이 기숙하던 곳인 재실, 공자를 위시한 중국의 성현들은 배향한 대성전, 한국의 성현을 배향하던 곳인 동·서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최치원 등 역대 유생이 배향되었다.

19. 중구 향토지(中區 鄉土誌) / 1995년

중구 향토지는 관내 마을에 구전 자료를 수집해 간행한 자료로 사진을 통해 본 어제와 오늘 중구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인천과 중구의 명칭 유래를 비롯해 문화재 표시석 등 명승과 유적을 수록하였다.

유물대 13

20. 통계연보 제1회 4294 / 1961년

21. 제9회 통계연보 1969 용진군 / 1969년

22. 제1회 중구통계연보 1989 / 1989년

23. 제1회 북구통계연보 / 1989년

II 인천광역시립도서관의 역사

<개항과 양관역정> 에 소개된 인천부립도서관

인천 최초의 양관(洋館 서양식으로 지은 집)

개항과 양관역정, 최성연 / 1959년

인천각 맞은편(동남향) 산마루에 수줍은낭 모로 퍼지르고 앉은 전 인천박물관! 붉은 지붕에 흰 벽, 그리고 띠엄띠엄 늘어선 맵시 좋은 사각주가 이루는 아이취의 후련, 더구나 만록이 무성한 정원은 미상불 인천각과 더불어 인천의 상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 독일인들이 무역을 위해 세운 세창양행의 사택으로 인천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자 1916년 일본은 적국재산관리물로 처리하였다가 1922년 인천부청(仁川府廳)이 구입하였다. 부청 매일 전까지 6년 동안 청광각이라 불렀다. 1922년 인천부청 매일 이후 최초의 인천부립도서관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었으며 도서관이 1941년 4월 신흥동으로 이전한 후 비었다가 1946년 4월 1일 이후 인천박물관으로 운영되기도 했으며 1950년대 사라졌다.

유물대 14

24. 인천시립도서관지(仁川市立圖書館誌) 창간호 / 1961년

인천시립도서관은 1921년 설립하고 1922년 1월 6일 ‘인천부립도서관(仁川府立圖書館)’으로 개관한 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관지(館誌)』 창간호이다. 사서실(司書室)에서 풀어 쓴 「인천시립도서관40년사」와 도서관 주요일지를 통해 1921년부터 1961년까지 40년간의 인천시립도서관의 역사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인천의 학교도서관 운동’,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세목표’ 등 인천의 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던 당대 사서들이 고민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당시의 이용규칙, 장서통계, 조직현황 등을 함께 볼 수 있어 초창기 인천 도서관의 역사를 총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유물대 15

25. 인천시립도서관요람 / 1963년

1961년 관지 창간호 발간 2년 후 발행된 인천시립도서관요람으로 시립도서관의 옛모습을 상세히 소개한 책이다. 자료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의 모습, 발간사, 도서관의 구조, 연혁, 이용규칙, 자료실별 자료현황, 카드형 목록 등 도서관의 여러 면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물대 16

26. 인천시립도서관 정리업무 관련 자료

III 귀중서 및 희귀서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은 1922년 개관 이래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자료수집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수집하고 보존해 온 귀중서와 희귀서를 전시하여 도서관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유물대 17

27. 인천다소면전답원림가대도형(仁川多所面田畚園林家垆圖形) / 1906년

인천 다소면 지역 이인영(李寅榮) 소유 전답과 원림(園林)의 대지 도형과 면적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작성된 날짜는 우선 책 표지에 광무 10년 4월이라 표기된 것으로 보아 1906년 4월이며 문서 말미에 이팔일(二八日)이란 표시로써 28일임을 알 수 있다. (『고서해제』,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2008. 남달우)

유물대 18

28. 운급도(雲級圖) / 1922년

“운급”이란 “구름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뜻하며, “운급도”는 종류별 구름의 모습과 설명을 담아낸 구름 도감을 말한다. 1921년 일본 고베에 위치한 “해양기상대”는 선박의 기상관측자들이 참고하도록 “해양기상관측법”을 발간한 바 있는데, 이 책에는 시각 자료가 없어 불편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종류별 구름의 사진·그림을 담아 발간한 것이 이 “운급도”이다.

100여 년 전의 하늘과 바다의 모습, 근대의 사진 기술을 볼 수 있는 자료로 내용은 1896년 “국제 운급도”에서 규정한 구름 분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 천보원년이강동경정기미월족고저표(天保元年 以降 東京 定期米月足高低表) / 1928년

일본의 연호인 천보 원년(1830)부터 흥화, 가종, 안정, 만연, 문구, 원치, 경응, 명치, 대정 소화 2년(1927)까지의 98년간의 쌀의 작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이다.

유물대 19

30. 대중일보(大衆日報) / 1945년 창간

수도권 최초의 한글 일간종합신문으로 1945년 10월 7일 고추철이 인천부 궁정(宮町)에서 창간되었으며, 창간 당시의 편집 겸 발행인은 최상철이다.

대중일보는 창간사에서 “사회정의의 옹호와 시민문화의 건설을 도모하여 결연히 인천을 기반으로 한 일간신문”이 될 것을 표방하였던 것처럼, 인천시민에게 새로운 국내소식과 국제정세를 신속하게 보도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식견을 함양하는데 앞장서고자 하였다. 그 후 1950년 ‘인천신보’, 1957년 ‘기호일보’, 1960년 ‘경기매일신문’으로 계재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물대 20

31. 정정 인어대방(正訂隣語大方) / 1882년

미추홀도서관에 소장된 「정정인어대방」은 1790년(정조 14년) 왜학당상역관 최기령이 편찬한 일본어 학습서 「인어대방」의 일본어판이다. 쓰시마 사람 우라세(浦瀬裕)가 「인어대방」을 증보하여 편찬한 것을 1882년 일본 외무성에서 출판하였다. 9권을 천, 지, 인(天, 地, 人) 3책으로 나누었으며, 한글을 주문으로 하고 왼쪽에는 필요한 한자. 오른쪽에는 일본어를 달아 놓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2. 재간 교린수지(再刊交隣須知) 2책(영본), 소장본 권 1, 3

미추홀도서관에 소장된 「재간 교린수지」는 조선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조선어학습서이다. 1883년(명치16)에 외무성장판(外務省藏版)을 간행한 것으로 전체 4책 중 2책(권 1, 3)만 있는 영본(零本) 여러 권으로 한 벌이 된 책에 빠진 권이 있음이다. 한글로 쓴 것을 일어로 역(譯)한 것이다. (『고서해제』,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2008. 김상태)

33. 임경업전(林慶業傳) / 1907년

미추홀도서관에 소장된 「임경업전」은 일본 외무성장판(外務省藏版)으로 1907년(명치 40)에 간행된 것이다. 범례와 정오표가 있는 속지에 재조선국인천항일본영사관(在朝鮮國仁川日港日本領事館) 직인이 찍혀 있어, 이 책이 당시 일본 영사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임을 알게 해준다. 이 책은 순 한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명과 지명, 관명 및 성명은 오른쪽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고서해제』,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2008. 양운모)

유물대 21

34. 순종국장록(純宗國葬錄) / 1926년

조선의 제 27대 임금 순종(재위 1907~1910)의 국장 사진 및 관련 기록을 담은 책이다. 1926년 조선박문사에서 발행하였다. 수록된 내용은 국장 사진과 조선의 역대 왕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고 순종의 생애와 사람됨에 대해 기술하였다. 사진은 맨 앞에 조선 태조의 어진과 고종의 초상사진을 배치하고 있어 순종의 초상사진과 생전의 모습, 순종의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의 초상사진, 영친왕 부부 사진 등을 실었으며 그 뒤에 국장 진행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사진들로 수록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35. 조선토지문제논고(朝鮮土地問題論考) 박문규 저 / 1946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로 발표된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박문규의 논문을 국역한 책이다. (※박문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경제학자, 북한의 정치가)

유물대 22

36. 과학의 지식 / 1947년

[머리말]에서 발췌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문학 방면은 중요시하였으나 과학과 같은 실학 방면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냉정한 편이었다. 그러나 대전 이후 과학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였으나 아직 과학에 대한 지식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없지 못하다. 우리들의 생활하는데 일상으로 발생하고 또는 일상으로 경험하는 현상에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바로 관찰하고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추리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기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근대의 지식부문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중한 요소하고 하겠다.

37. 인간고도(人間孤島) 조병화 저 / 1954년

한국의 대표적 '다작 문인'으로 불리는 편운(片雲) 조병화(1921~2003)는 1949년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이래 총 53권의 창작시집과 40여 권의 수필집을 낸 문인이다. 『인간고도』는 조병화의 네 번째 시집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삶 등을 노래하고 있다.

유물대 23

38. 국제연합헌장전역(國際聯合憲章全譯) 김성주 번역 / 1954년

『국제정치와 국제연합』이라는 도서의 부록으로 간행하려고 했으나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국제연합헌장전역』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번역된 도서이다. 국제정치와 국제법, 국제사정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목적으로 했다.

39. 문장독본(文章讀本), 이광수 저 / 1954년

춘원(春園) 이광수가 일제하 몇 편의 자신 초고를 한데 묶어 발간한 것이다. 문학, 수양, 일기, 소설, 시, 동화, 기행 등을 모아 모두 29편의 장르로 엮은 것으로 작가의 습작기라고 할 수 있는 초창기 문학의 배경과 현실, 내력을 알게 해주는 글이다.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유물대 24

40. 여인소묘(女人素描), 천경자 저 / 1955년

여류화가이자 수필가인 천경자의 제1수필집으로 컬러 표지 그림과 15점 이상의 흑백삽화, 수필 3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수필집은 화가의 눈에 비친 세계를 대담하게 표현하였고, 문체도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이다. 목차에 그려진 뱀 그림도 매우 독특하다.

41. 생명의 서(生命的 書), 유치환 저 / 1955년

유치환의 두 번째 시집으로 행문사(行文社)에서 발행되었으며, 총 59편의 작품이 1부와 2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955년 영웅출판사에서 나온 재판으로 초판에 3편이 더해져 모두 62편(제1부 34편, 제2부 28편)을 실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물대 25

42. 민족문화독본(民族文化讀本), 양주동 저 / 1955년

현진건의 『불국사에서』, 이병기의 『부여행』 등 민족문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양주동(梁柱東, 1903~1977)이 엮어 펴낸 책이다.

시(詩) 식목제(植木祭)

유치환

보라, 오늘,
보랏빛 장백산맥(長白山脈)이 남으로 남으로 갈래 뺨은
아시아 동쪽 작은 반도의 산이란 산 외란 외엔,
그 골짜기에 깃들어서는 온 백성들이,
양춘(陽春)의 따뜻한 햇빛을 받고 올라 가,
옛 이스라엘 목속들이 나라를 찾아 광야(曠野)에 호소하듯,
오랜 인옥(忍辱)에 헐벗긴 어머니인 조국을 애석하여
마음으로 나무를 심어 아끼기에 강산이 허명나니,
이 땅 아들 딸의 눈물과 한숨이
속속들이 스며든 애달픈 산천이기에,
식목제(植木祭)

43. 출판도서해설,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1956년

서울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고도서 전시회에 출품된 서적들을 해설한 책이다.

전시회에는 역사, 지리에 관한 한국본을 중심으로 동양서 67종, 서양서 79종이 출품되었다.

(전시기간: 1956. 10. 13 ~ 1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4. 제지 인쇄 : 사적고찰과 그 공정 (製紙 印刷 : 史的고찰과 그 工程)
최장수 저, / 1959년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설치된 공중보건학교에서 의무행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원고를 토대로 만든 책이다. 인쇄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인쇄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극히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용지, 재판, 인쇄, 제책에 관한 내용을 평이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했다.

“100년의 자료 수집, 인천의 역사가 되다” 전시를 통해 미추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서와 희귀서를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자료의 수집과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역사자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였다.

100년의 도서, 시대를 읽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192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0년의 베스트셀러를 주제로 어울림터에서 기획전시 “100년의 도서, 시대를 읽다”를 진행하였다.

전시내용으로는 베스트셀러란, 1920년대~2010년대 베스트셀러 연표, 시대별 대표작, 추가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대별 분위기와 인물, 대중의 가치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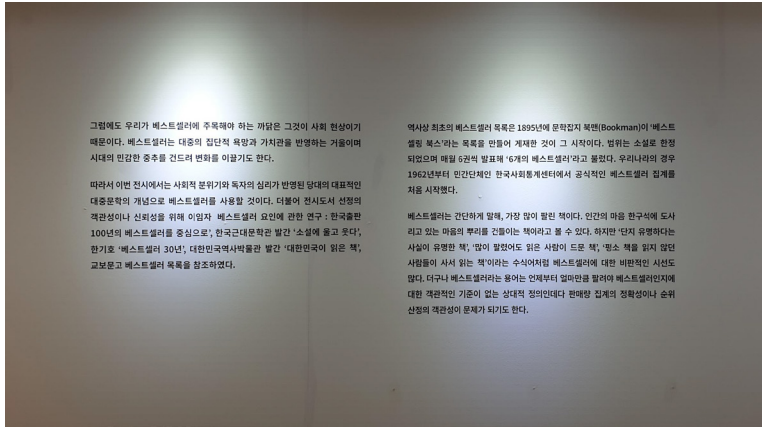
[선정도서]

기 준	서지정보	비 고
1920~1929 최초의 베스트셀러	노자영, 사랑의 불꽃, 1923	'사랑의 불꽃'의 인기 신문기사
1930~1945 고단한 현실을 견뎌 힘	이기영, 고향, 1933	
	박계주, 순애보, 1939	
	김내성, 마인, 1939	
1945~1959 해방과 전쟁	정비석, 자유부인, 1954	정비석-황산덕 지상논쟁, 영화의 인기
1960~1969 격동기의 고뇌와 새로운 감수성	최인호, 광장, 1960	
	유주현, 조선총독부, 1964	
	박경리, 토지, 1969	
1970~1979 고도경제성장, 산업화의 그늘	최인호, 별들의 고향, 1972	1970년대 한채방 영화의 인기
	조해일, 겨울여자, 1975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78	

기 준	서지정보	비 고
1980~1989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이념의 시대	김홍신, 인간시장, 1981	영화, 드라마, 연극으로 재탄생
	조정래, 태백산맥, 1983	
	서정윤, 홀로서기, 1987	
	이문열, 삼국지, 1988	
1990~1999 세계화의 명암 속 다양성의 시대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 1990	베스트셀러 트로이카
	김진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993	
	이우혁, 퇴마록, 1994	
	J.K.롤링, 해리포터, 1999	
2000~2009 개인주의와 글로벌리즘	파올로 코엘료, 연금술사, 2001	2000년대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와 베스트셀러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2008	
2010~2019 멘토와 힐링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2010	
	헤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12	
	히가시노 게이고, 나미야 잡화점의 비밀, 2012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2016	

※ 선정기준

- 사회적 분위기와 독자의 심리가 반영된 당대의 대표적인 대중문학 (판매량, 사회적 의미 모두 반영)
- 1920년~1989년 : 이임자 ‘베스트셀러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출판 100년의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관 발간 ‘소설에 울고 웃다’ 목록 참조
- 1990년~2019년 :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간 ‘대한민국이 읽은 책’,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 참조



고 향

■ 이기범, 1933



1930년 사회주의 문학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는 작품
 사회주의의 시선으로 포착한 농촌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농민계몽에 힘쓰며 농사를 짓는 회춘을 중심으로 기남할 소작농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그리는 한편, 회춘의 소꿉동무 감숙을 중심으로는
 농장 노동자가 짓는 부당한 현실을 고발한다.

저자 이기범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에서 활동했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이다. 고향의 성불사에 내리기 40여일 만에 2천장에 이르는
 『고향』의 초고를 완성하고 조선일보에 연재하던 도중 『실경실사 사건』에 휘말려
 징역을 선고받아 동료 김기진에게 인재를 이어달라고 부탁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고향』은 1937년 단행본 발간 당시 이광수의 『흙』, 관매요의 두 배를 뛰어넘으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순 애 보

■ 박계주, 1939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최상정신을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시켜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순애와 안락하운 사랑의 것일짐을 다량하게 표현하여
 많은 인기를 얻은 대중소설이다. 메일신보 특별현상소설 공모 당선작이었던
 『순애보』는 현재 당시 메일신보 구독률이 두 배 가까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고,
 1939년 초판 발행 후 10년 만에 50세를 발행했을 정도로 기록적 판매고를 올렸다.

1941년 전국으로 공인되었고 1958년에는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마 인

■ 김내성,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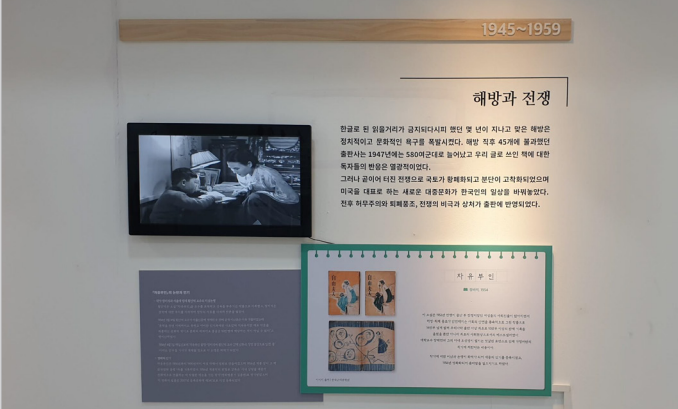
『마인』은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순수 창작 주희소설로
 괴도 루팡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에서 따온 '유물환'이라는
 한국형 명탐정을 독자에게 각인시킨 작품이다.
 폭발적인 인기로 일출이 발표 50만에 30만을 돌파했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30만을 넘었다고 한다.

1980년대 말까지도 인기를 유지했으며, 전국과 영화화, 뮤지컬 리메이크 되었다.
 1957년 개봉한 영화 '마인'은 한국 최초의 합성영화라고 불린다.

이미지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1945~1959

해방과 전쟁



한국로 된 읽을거리가 금지되다시피 했던 몇 년이 지나고 맞은 해방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욕구를 폭발시켰다. 해방 직후 45권에 불과했던
 출판사는 1947년에는 580여군데로 늘어났고 우리 글로 쓰인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그러나 끝이 어딘지 정점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미국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대중문화가 한국인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후 허무주의와 퇴폐풍조, 전쟁의 비극과 상처가 출판에 반영되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1945~1959

해방과 전쟁

한국로 된 읽을거리가 금지되다시피 했던 몇 년이 지나고 맞은 해방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욕구를 폭발시켰다. 해방 직후 45권에 불과했던
 출판사는 1947년에는 580여군데로 늘어났고 우리 글로 쓰인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그러나 끝이 어딘지 정점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미국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대중문화가 한국인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후 허무주의와 퇴폐풍조, 전쟁의 비극과 상처가 출판에 반영되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자 유 부 인

■ 정비서, 1954



이 소설은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전쟁미망인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막히면서
 혁명-퇴폐-종교가 인연해지는 사회의 단면을 통속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14만부 넘게 팔려 우리나라 출판 사상 최초로 10만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회현상으로서의 베스트셀러였다.

데칼로그수 장태연과 그의 아내 오신영이 벌이는 엇갈린 로맨스로 인해 가정파탄의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작가에 대한 비난과 논쟁이 화제가 되어 대중의 인기를 증폭시켰고,
 1956년 영화화되어 흥매량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자유부인」의 논란과 인기

- 작가 정비석과 사울대 반대 학생회 교수의 지상논쟁

황산혁은 소설 「자유부인」을 교수를 모욕하고 성욕을 부추기는 작품으로 지목했고, 정비석은 문학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며 창작의 자유를 내세워 반론을 폈다.

1954년 3월 14일 황산혁 교수가 서울신문에 게재한 두 번째 공개 비난문은 더욱 격렬하였는데 "문학을 전연 이해하지도 못하고 야비한 인기욕에만 사로잡혀 저속유지한 예로 작품을 회통하는 문화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명에 해당하는 적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하였다.

1954년 4월 1일 매일신보에 자유부인 일평-정비석씨 황산혁 교수간에 난투극 지방 중상으로 일침 중'이라는 만우절 기사가 게재될 정도로 이 논쟁은 화제가 되었다.

- 영화의 인기

자유부인은 1956년부터 1990년까지 여섯 차례나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1956년 개봉 당시 그 해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하였다. 1956년 개봉작의 한형모 감독은 '시대 상황을 대중적 친화력으로 연출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작가'(영화평론가 김동원)로 평가받았으며 이 영화의 필름은 2007년 등록문화재 제347호로 지정 등록되었다.



격동기의 고뇌와 새로운 감수성

4·19 혁명, 5·16 군사정변, 그리고 한일회담과 한일국교정상화 등의 사건을 겪은 격동의 시대인 1960년대는 전후의 그림자와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시대였다. 실존주의가 유행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4·19 세대'로 일컬어지는 작가와 지식인이 등장하고 예전과 다른 새로운 감수성으로 무장한 작가들이 부각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출판사들이 속속 전진과 문고본을 출간하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했다.

1960~1969

격동기의 고뇌와 새로운 감수성

4·19 혁명, 5·16 군사정변, 그리고 한일회담과 한일국교정상화 등의 사건을 겪은 격동의 시대인 1960년대는 전후의 그림자와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시대였다. 실존주의가 유행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4·19 세대'로 일컬어지는 작가와 지식인이 등장하고 예전과 다른 새로운 감수성으로 무장한 작가들이 부각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출판사들이 속속 전진과 문고본을 출간하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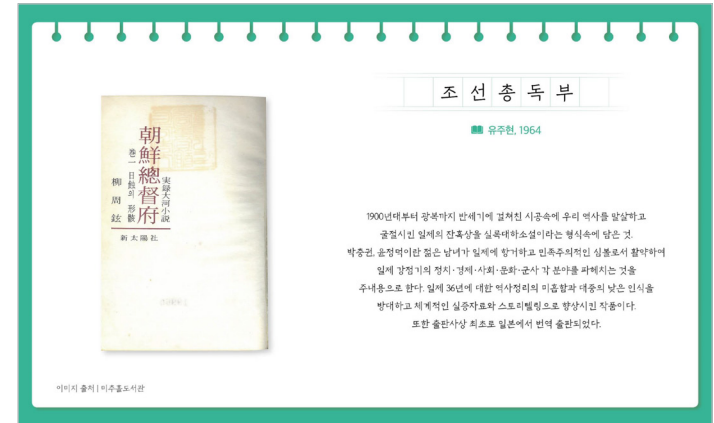
광 장

■ 최인훈, 1960

종말지 '색역'에 발표된 최인훈의 문적작 자신만의 밀실이 없는 '남도 사회적 광장'만이 존재하는 '북도 아닌 남지'나에 비아를 신격할 수 밖에 없었던 '이명준'이 대표하는 우리 민족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

처음 발표된 「광장」은 중반이었는데 15년간 무의 여섯 차례의 재판을 거지며 현재의 장면 규모로 불어났다. 분산현실의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선보인 이 작품은 현재까지 190여회 넘게 사랑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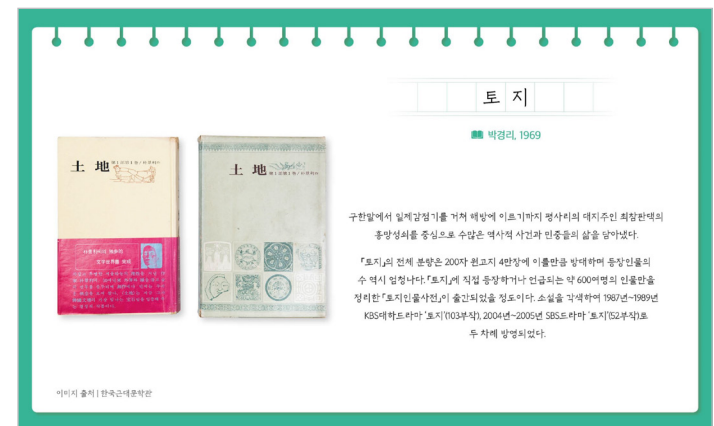


조 선 총 독 부

■ 유주한, 1964

1900년대부터 광복까지 반세기 걸친 시공속에 우리 역사를 알삼하고 굴절시킨 일제의 만혹상을 실목해소설이라는 형식속에 담은 것. 박종권, 윤정익이한 젊은 남자가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주의적인 심혼으로 활약하여 일제 강점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각 분야를 파헤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일제 36년에 대한 역사정리의 미증함과 대용적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세계적인 실증자료와 스토리텔링으로 향상시킨 작품이다. 또한 출판사상 최초로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이미지 출처 | 미추홀도서관



토 지

■ 박경리, 1969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있기까지 평사리의 역사주인 최합천의 총망설이를 중심으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민중들의 삶을 담았다.

「토지」의 전체 분량은 2004년 천고지 4만장에 이를만큼 방대한 양이며 등장인물의 수 역시 엄청나다. 「토지」에 직접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약 600여명의 인물만을 정리한 「토지인물사전」이 출간되었을 정도이다. 소설을 각색하여 1987년~1989년 KBS에다라마 「토지」(103부작), 2004년~2005년 SBS에다라마 「토지」(52부작)로 두 차례 방영되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1970~1979

고도경제성장, 산업화의 그늘

1970년대는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고도성장의 시대로서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화·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자유의 욕구 또한 증대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남북 간 긴장이 유신체제로 귀결되면서 억압된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고도성장과 산업화의 폐해가 드러났다. 그 결과 1970년대를 지배하게 된 것은 일종의 문명적 기류다.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문화가 등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폭문화나 호스티스 문화로 상징되는 밤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나기 시작했다.

별들의 고향

■ 최인호, 1972

통기타와 청바지, 생맥주로 대표되는 70년대 '청년문화'를 선도한 작가 최인호. '인기척'과 '상업주의'는 알도 최인호 이후 민변하게 쓰이게 되었다.

산업화에 희생되는 여성 및 청년 세대의 상황과 죽물적인 도시의 이면을 감성적이고 대중적인 줄거리로 그려 '호스티스 문학'의 시작을 연 작품이다.

단행본으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별들의 고향'은 1972년 동명의 영화로 각색되어 47만 4800여명이 보는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이비치 출판 | 한국근대문학관

겨울 여자

■ 조해일, 1975

1975년 중앙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 따뜻한 겨울여자 이야기를 등장시켜 결혼 거부, 성 해방 등 현대 여성의 애정모험을 혁신적이고 대담하게 그린 70년대 대표적 풍속소설. 1977년 김호신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60만명이 보는 최역관객 동원의 기록을 세우고 1982년 '겨울여자2'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비치 출판 |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겨울여자'의 인기

소설의 인기로 힘입어 1977년 개봉한 영화 '겨울여자'는 57만명을 동원하여 별들의고향(1974)을 제치고 한국영화 흥행 1위에 올라섰다. 이 기록은 1990년 개봉한 '장군의 아들'까지 깨지지 않았고 여주인공 장미희는 이 영화를 계기로 스타덤에 올랐다. 당시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비원 앞까지 2킬로미터에 이르는 줄이 섰다고 한다.

겨울여자 (1977)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조세희, 1976

70년대 무척 가난한 작자 조세희의 문집으로 12편의 단편소설. 산업화 사회가 양분한 근로자 층에 사회적 문제를 다뤄 지시인, 노동자 모두에게 필독서로 읽혔다. 처절한 사회변화 속에 대치해나가는 여러 계층의 삶의 양상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현실적이지만 서정적으로 고발하는 작품이다. 2017년 한국 출판사상 최초로 300대를 돌파하였다.

이비치 출판 | 한국근대문학관

“민중성,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불러 새로운 소설장을 만드는 곳”

여러는 당시 민중성이라는 이름의 동구 공작에서 발행을 시작한 소설장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모호지 않은 것이다. 25년째 이후 제각각의 길에 서서서서
 그러나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 시대의 새로운 소설장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소설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소설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소설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소설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소설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1980~1989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이념의 시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됐고 1987년 6월항쟁을 거친 1980년대는 군사정권의
 대대적인 탄압 속에서도 시나 소설같은 문학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가 은유적으로
 발현되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태백산맥」이 대표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홀로서기」로 서정성이 스타 시인으로
 떠올랐으며 서정시가 대유행했다.



인간시장

■ 김윤신, 1981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최초의 일지인셈이다.
 주인공 장준하가 변용으로 소개되기, 사비비 종교단체, 합육의 현상 등
 사회의 어두운 면상에 휘어질 수 있는 정의를 위해 총칼을 휘둘러야 하는 줄거리.
 송봉을 치는 1980년대의 분위기 속에서 초능력적인 데미안을 통해 억압된 욕구를
 통제하게 표출하여 열렬한 독자층을 확보했다.

이치출판 | 미추홀도서관

소설 「인간시장」, 큰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드라마·연극으로 재탄생

- 영화: 「인간시장」, 김윤신 감독, 서울특별시, 1981년 개봉, 1981년 개봉, 1981년 개봉
- 드라마: 「인간시장」, KBS 2TV, 1981년 10월 10일 ~ 1981년 11월 10일
- 연극: 「인간시장」, 연극, 1981년 10월 10일 ~ 1981년 11월 10일



이치출판 | 태백산맥



태백산맥

■ 조정래, 1983

「태백산맥」은 조정래 작가가 1983년 일대문학에 연재를 시작한
 한국문학에서 6.25전쟁 연재를 아치고 완결한 대하소설이다.
 연승작이었던 1948년 발표 표구를 기준으로 6.25전쟁 후의 지류인
 1950년까지 피적인사들이 전제했던 풍기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과거를 만우한
 작품이다. 「태백산맥」은 화경이라는 형식을 빌려서도 1987년 이후
 자유로워진 분위기에 힘입어 8백만부 이상을 판매했다.

홀로서기

■ 서정윤, 1987




「홀로서기」는 1981년 서정윤이 영남대학교 학생시절 '영대문화'라는 대학고지에 발표했던 시이다. 이 시는 그 내용의 보편성과 대중성에 힘입어 대중시장을 중심으로 복사본과 필사본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방송 전파를 타면서 엄청난 독자층을 확보했다. 1987년 3월 시집이 출간되자 큰 인기를 얻어 시집으로는 첫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웠다. 1987년 1988년 2년 연속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에 올랐다. 1988년에는 1~3월까지가 모두 시집이었다고 20권권 내에 총 7종의 시집이 오를 정도로 시의 전성시절이었다.

이미지 출처 | 미추홀도서관

삼국지

■ 이문열, 1988



「이문열 신드롬」이란 용어까지 만들어 낸 그는 통속연예소설의 공격을 갖춘 대중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여 엄청난 고정독자를 확보한다. 이어 88년에 펴낸 「삼국지」는 한글세계에 맞는 문체와 웅장고전적 대한 매력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출간 후 10여 년 간 1천1백30만 부가 팔려나가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됐다. 특히 출간 후 매년 70만 부 정도 판매되던 「삼국지」가 93년 서울대 수석입학한 최지훈군이 「눈송고사를 위해 이문열의 「삼국지」를 13편 읽었다」고 말하고 나자 그 판매부수가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진용사, 94년

1990~1999

세계화의 명암 속 다양성의 시대

1980년대 저성장기 내내 1990년대 이후에도 한동안 출판시장의 호황은 이어진다. 그러나 IMF 체제로 불리는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자기계발서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경제·경영서의 인기가 인문서적의 인기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인문서 중에서도 심리학책, 판타지물이 유행하는가 하면 일문문학 번역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1990~1999

세계화의 명암 속 다양성의 시대

1980년대 처음으로 밀리언셀러가 출현한 이래 1990년대 이후에도 한동안 출판시장의 호황은 이어진다. 그러나 IMF 체제로 불리는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자기계발서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경제·경영서의 인기가 인문서적의 인기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인문서 중에서도 심리학책, 판타지물이 유행하는가 하면 일문문학 번역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소설 등의 보감

■ 이은성, 1990



「소설 등의보감」은 조선왕조 중엽 뒤러온 신문자별 속에서 신문으로 태어나 정일종 보국송록체류에 상형문이라는 작호까지 받았던 동희보감의 저자 최준의 일대기이다. MBC 방영 드라마 「길남의」 작가였던 이은성은 30여년에 걸쳐 「길남」을 소설로 교역해 번역하면 총 50장정으로 출간된 작고하였다. 친구 이진섭의 소개로 창작과비평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출판되었고 창작과비평사는 이 소설 하나로 24년 역사를 독자로 바꿔놓았다.

이미지 출처 | 189방이

조유미 베스트셀러 트로이카 「소설 등의보감」, 「소설 토방비결」, 「소설 복판심서」

- 「길남」의 저자 최준의 일대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등의보감」이 1990년 초의 대표작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소설들은 유명작가가 쓴 역사소설을 추종하려는 것, 한편적인 문구와 강한 문체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계급으로 이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은 역사적 인물의 고독한 길남이 일종의 자기발견처럼 일하고, 후속작인 「소설 토방비결」은 배운 문체의 구사로 명상에게 익숙한 독자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역사적 사실을 간략한 소설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후의 최유미 소설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이은성의 「소설 등의보감」(1990), 문인계 집필한 최준의 일대기를 그린 143쪽짜리 일설(1975년)이 은은 소설로 격조있게 집필함으로써 조선일보에 실린 최유미 작가의 서명 이후-작은 판매량 상승세를 보여 1990년대 첫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 최유미의 「소설 토방비결」(1991) 중세시대와 근세사실과의 격차 중 소설을 중간한 하는 일대기 신문에서 신문의 전통을 통해 유한한 작가는 아니었다. 소설 토방비결 출간 이후 「소설 일방비결」, 「소설 사상의학」, 「소설 심판」 등 4개의 권의 역사소설을 집필했다.
- 최유미의 「소설 복판심서」(1992) 중세시대와 근세사실과의 격차 중 소설을 중간한 후의 일대기 신문에서 신문의 전통을 통해 유한한 작가는 아니었다. 일설 출간 후 20여년의 호반을 앞두고 1992년 일방비결 출간 후 20여년 만에 20여만 부가 팔렸다.



이미지 출처 | 미추홀도서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김진명, 1993



한 천재 예술리학자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찾는 역사추리소설이다. 기자 겸 소설가는 악성 뇌종양의 실혹을 받아들이며 책무기 책임에 참여한 이후 박사의 죽음에 미성보양국이 없게 있음을 알아낸다. 악성 뇌종의 죽음과 함께 책 제목은 이공계 박사들이 남긴 공중으로 책무기를 적발하기로 합의하고 아시아의 재건을 장담하기 위해 한국을 공격한 일본을 응징한다.

93년 제1차 북한 핵 위기 상황과 광복 50주년에 거듭된 일본축의 과거사 및 독도 망언, 신명 위기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그 절박한 중추지점에서 뛰어난 베스트셀러였다.

이머지 출처 | 책당출판사

퇴마록

■ 이우혁, 1994



결국 더 문학 시대의 개막을 알린 소설이다. 인간의 영적, 정신적 세계를 지배해 사회를 혼란과 범죄의 혼상으로 몰아가는 악한 마귀들을 격퇴하는 과정이 흥미로워서 전경되는 한국형 판타지의 진조다. 작가 이우혁은 문학과 지리가 먼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엔지니어로 1993년 PC통신 하이텔에 글을 올리게 시작한 것을 계기로 『퇴마록』을 썼다. 『퇴마록』은 1000만부가 넘게 팔렸다.

이머지 출처 | 미추홀도서관

해리포터

■ J.K. 롤링, 1999




어둠과 마법사, 현실과 마법의 세계라는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흥미진진한 세계를 만들어낸 독특한 판타지 소설로 시리즈 일곱 권이 80억 인화로 번역되어 5억부 이상이 팔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수집이 1999년 11월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3,000일을 발행하면서 1500만부의 베스트셀러 기록을 시작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8편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세계에서 77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머지 출처 | 미추홀도서관

2000~2009

개인주의와 글로벌리즘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개방화, 자유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의 정체성이 국가나 민족 개념보다 중시되면서 내면의 목소리와 힘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가족이나 타인과의 소통을 강조한 책도 주목을 받았다. <MBC 뉴스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의 영향력이 컸고, 『해리포터』 시리즈와 『다빈치코드』 등 지구촌 베스트셀러가 국내에서 주목받은 것도 특징이다.

이머지 출처 | 문화동행

2000~2009

개인주의와 글로벌리즘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개방화, 자유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의 정체성이 국가나 민족 개념보다 중시되면서 내면의 목소리와 힘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가족이나 타인과의 소통을 강조한 책도 주목을 받았다. <MBC 뉴스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의 영향력이 컸고, 『해리포터』 시리즈와 『다빈치코드』 등 지구촌 베스트셀러가 국내에서 주목받은 것도 특징이다.

연금술사

■ 파울로 코엘료, 2001



신학교를 다니던 주인공 산티아고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양친이 되어 고된 여행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보편적인 주제가 담겨있다. 즉 작가가 전하는 삶과 영혼의 연금술이다. 결국 산티아고는 '네 안에 있는 마법과 사랑, 대안, 별을 그리고 우주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아를 깨닫는다.'

이머지 출처 | 문화동행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2008

이 소설은 가족에게 무관심한 사랑을 주지만 학업 엄마가 지학열에서 실종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가족과 오성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특유의 서정적이고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내면서도, 실종된 엄마를 추적하는 주체적 기법을 도입해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 글로컬 글로컬이 이주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시대의 트랜드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큰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40개국 이상 저작권이 수출되었다.

이미지 출처 | [89장]

2000년대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와 베스트셀러

- 미국 아마존사는 1996년 인터넷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 최대의 IT 기업으로 거듭 되었다. 인터넷 쇼핑물이 흔하지 않던 당시 책은 선행의 고인이 적고 배송 중에 고장 날 이유가 있는 좋은 '인터넷용' 상품인 것이 이유였다. 이후 북스타트, 인스트레스 북스닷컴이 개설되면서 인터넷 보급과 함께 온라인 기반 서점이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종로서점인 인터넷 판매 행사이드를 처음 오픈하였고, 1999년 예스24가 그 혁신인 컴퓨터를 계단장터 인터넷 서점으로 문을 연 데 이어 알라딘, 인터파크 등이 줄이어 문을 열면서 국내 책 시장에 인터넷 서점 시대가 열렸다. 이후 이후 동인닷컴 포함 서점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20년 기준 2조 4,350억에 이를 정도로 출판시장에서 인터넷 서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 인터넷 서점의 성공은 책을 사고파는 과정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각 책의 실시간 판매 부수, 주요 베스트셀러 목록, 추천 도서 목록, 구매자 후기 등의 정보가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이를 참고하여 책을 사는 문화가 확산됐다. 독자로서는 도서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구입과정이 간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책을 구매하는 경로가 단순화·표준화되면서 잘리는 책만 더 잘리는 책 유행할 구조가 되었다. 베스트셀러가 사회의 반영으로서 독자매출의 지인스러운 수종의 결과였던 책도 일순간 수요는 쇠퇴적, 조직적 쇠퇴하는 경우도 있는 이유이다. 특히선 최근 도서권과 서점에서는 북 큐레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양한 취향과 요구를 반영한 도서 선별과 추천을 통해 좋은 책이 소개되지 않도록 돕는다.

멘토와 힐링
■ 이민, 201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는 'N포세대': 대중들은 멘토가 어깨를 두드리며 던져주는 한 줄의 '위로'에 공감했다. 자기계발서보다는 내면을 어루만지는 에세이류의 책들이 강세였다.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의 영향으로 여성학 분야 도서의 출간도 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수호석

아프니까 청춘이다
■ 김난도, 201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는 'N포세대': 대중들은 멘토가 어깨를 두드리며 던져주는 한 줄의 '위로'에 공감했다. 자기계발서보다는 내면을 어루만지는 에세이류의 책들이 강세였다.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의 영향으로 여성학 분야 도서의 출간도 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생연하이스

201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자가 취업시장에 진입한 시기이다.
이들은 '최고 학력'을 앞장서서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가장 적게 버는' 불안한 세대로 전락했다.

이 책은 불안한 미래와 최후를 정순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42편의 격려 메시지이다.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라는 조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이민, 2012

헤인 스님이 트러키에 남긴 잠언을 모은 책으로 2012, 2013년 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관계, 사랑, 마음과 인생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말하고 이해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들이고, 이 책과 더불어 법륜스님의 '스님의 주례사', '엄마수업', '정목 스님의 '달팽이가 느리도록 놓지 않아요'와 같이 힐링을 표방하는 스님들의 책이 인기를 모았다.

이미지 출처 | 수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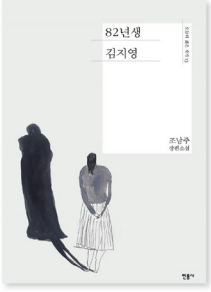


나미야
잡화점의
비밀

■ 히가시노 게이고, 2012

주미소설로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판타지 소설.
뚜렷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세 명의 젊은이들이
아무도 알지 않는 오래된 잡화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지를 주고받고,
미지의 인물의 상냥에 웅한다는 설정.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물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 감동을 자아낸다.
일본과 중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극공연으로 재탄생되었다.

이미지 출처 | 현역문학



82년생
김지영

■ 조남주, 2016

이 소설은 정신분석적 증상을 보이는 1982년생 '김지영 씨의 성장' 기록으로
그녀의 인생을 재구성한 것을 한 축으로, 그를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자료와 기사들을
또 다른 축으로 삼아 '김지영' 여성의 현실로 본 한국 사회적 성차별 구조를
그려냈다. 2016년 5월 강남에 살던 20대 '김지영 씨'가 '김지영 씨'가 시작되면
'82년생 김지영'이 출간돼 한국 소설로는 9년 만에 100만부가 넘게 팔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20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다.

이미지 출처 | 현역문학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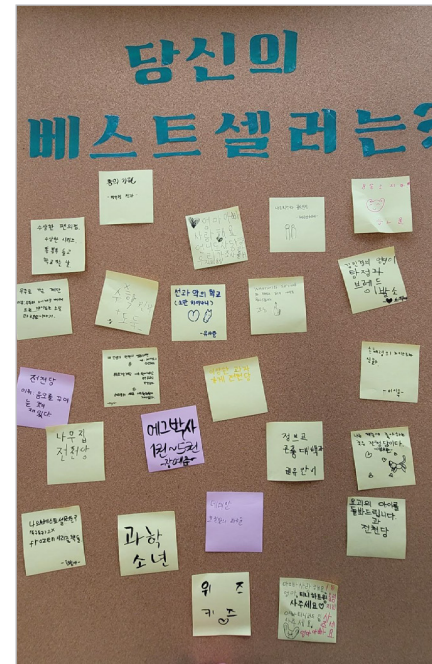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이 읽은 책』, 2016.
- 장우고인쇄박물관, 『한국의 베스트셀러 90년 : 2014 근대사지학회 공동기획 특별전』, 2014.
- 한국근대문학관, 『소설에 물고 쪼다』, 2017.
- 한국근대문학관, 『한눈에 보는 한국근대문학사』, 2018.
- 한겨레, 『베스트셀러 30년』, 2011.

논문


- 권보재, 『베스트셀러, 20세기 한국 사회의 속도』, 『근대서지』 10호, 근대사지학회, 2014.
- 김기태, 『국내 문학도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 『한국문학연구』 114권 제2호, 2015.
- 이영자, 『베스트셀러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출판 100년의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태수, 이경미, 『1920년대 연애담론과 기록출판 시장의 불꽃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의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근대문학회, 2008.

기사


- '물수 안 쓰면 비보 된다' 출판사 베스트셀러 만들기 실패...인턴서점 등장 후 격화, 시사저널, 2013.05.21.
- '대중의 욕망을 비추는 또 다른 거울'...베스트셀러로 읽는 시대의 키워드, 경향신문, 2016.10.07.
- '배우 욕구 부티'富力의 갈망까지... 재미저서들 열거하면 시대가 보인다, 문화일보, 2021.11.01.
- '사람의 불꽃', 러브레터의 시대를 열다, 인천문화재단 문화비행기 플랫폼, 2016년 11, 2월호.
- '여성-퀴어 서사-장르문학...시대의 아픔과 꿈에하다', 경향신문, 2019.12.20.
- '오래된 이야기'를 사그라드는 베스트셀러 '거미', 월간 위문지, 2013. 7월호.
- '물리' 판권에 '복주머니'를 담은 출판문화, 한겨레, 2009. 4.10.
- '1995년 문 연 인터넷 서점...사 - 온라인까지 젊은 출판기업 열풍', 조선일보, 2020.11.24.
- '2010년대 도서시장의 흐름은... 여성·40대·핵심·유서민·인문', 독서신문, 2020.1.15.



베스트셀러 끝판왕



자동차 운전면허 예상 문제집
이미지 출처 | 크라운 출판사



수학의 정석
이미지 출처 | 성지출판사

근대소설 속 인천의 모습을 살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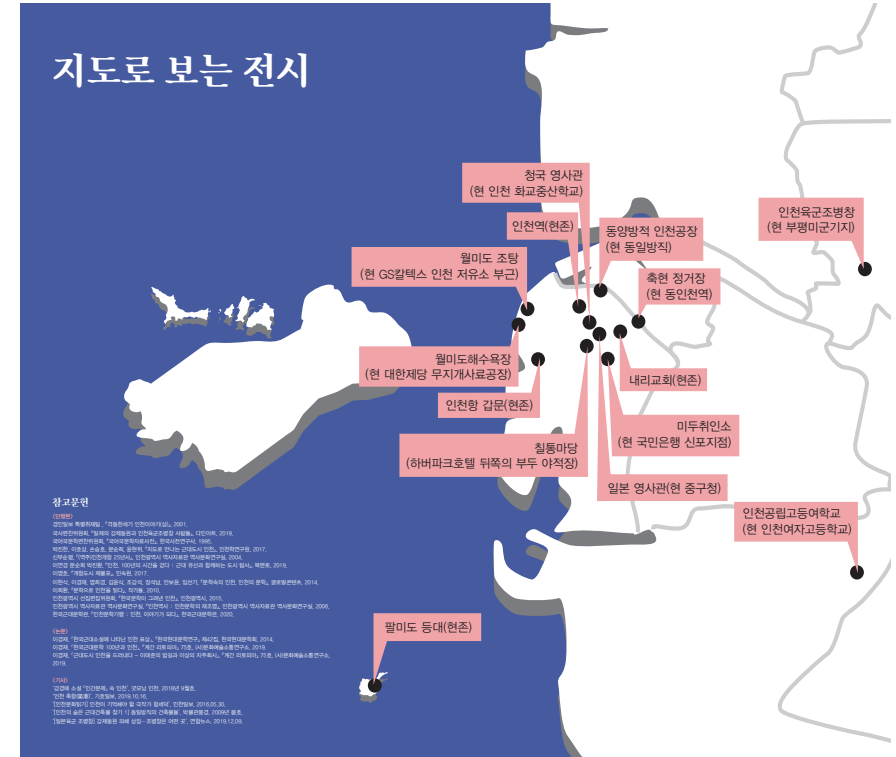
2022년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 “근대소설 속 인천의 모습을 살피다”는 근대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과 인천의 모습을 살펴보고 인천과 문학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자 기획하였다.

주요 전시내용으로는 인천과 근대문학사, 연표로 보는 전시, 인천을 배경으로 한 근대소설(18편) 소개, 인천 축항, 하와이 이민, 인천미두취인소 등 근대 소설 속 인천역사 이야기(5개)로 구성되었다.

[선정도서 1895년~1948년]

번호	작품명	작가명	출판년도	비 고
1	혈의누	이인직	1906	이야기 ① 인천항
2	빈상설	이해조	1907	
3	송뢰금	육정수	1908	이야기 ② 하와이 이민
4	모란병	이해조	1909	
5	해안	최찬식	1914	
6	재생	이광수	1924	이야기 ③ 미두취인소
7	인간문제	강경애	1934	이야기 ④ 공장
8	구름을 잡으려고	주요섭	1935	
9	밀림	김말봉	1935	
10	새벽바다	엄흥섭	1935	
11	지주회시	이 상	1936	
12	정열기	엄흥섭	1936	
13	남생이	현 덕	1938	
14	박명	한용운	1938	이야기 ⑤ 월미도
15	해연	함세덕	1940	
16	밤길	이태준	1940	
17	당량의 전설	채만식	1940	
18	해방공장	이규원	1948	

| 근대소설 속 인천의 모습을 살피다 전시



근대소설 속
인천의
모습을
살피다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특별전시

2022.4.12
- 6.30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근대소설 속
인천의
모습을
살피다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특별전시

2022.4.12
- 6.30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근대소설 속 인천의 모습을 살피다 - 연표

근대소설 속 인천의 모습을 살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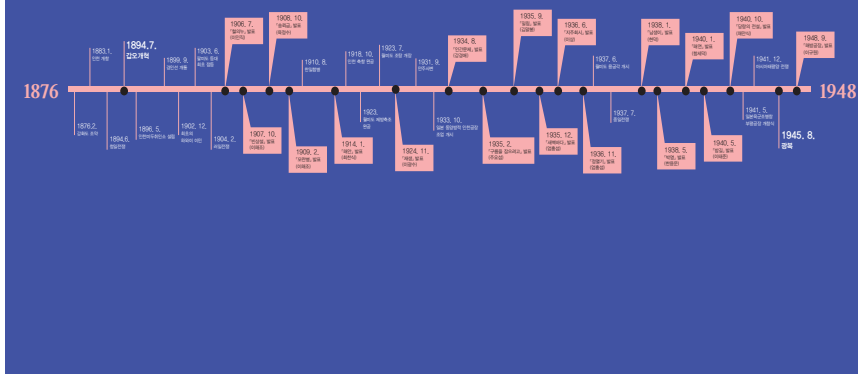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48년까지 개화기 - 일제강점기 - 해방기를 포함하는 근대 시기 소설 속 인천의 모습을 살피다.

인천은 1883년 근대적 개항을 거치던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특히 수도권 서울을 염에 가장 큰 항구도시였기에 이 지리적 특징에서 밀려들어 개항은 물론 공업, 노동운동 등 한국근대의 주요 대륙에서 우연으로 등장했다. 더불어 인천은 항구 경제 뿐 아니라 근대적 생활, 삶의 새로운 질서로서의 근대사회의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인정받았다. 그것이 관공류물시절인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공문사회(관료 사회)를 본격적으로 조형한 공창제이던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성찰적 시선을 갖고 있던 작가들 속에서 빛을 보게 되는 여건이었다. 인천이 항구근대문학의 주요 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다.

인천의 개항을 두고 오늘날에도 여러 논쟁이 일기는 하지만 그 이전 광후로 해마다 개항의 실패에 대한 갈피 있는 이야기 선풍되어 왔다든 말든 분명하다. 개항 해역에 근대적인 문명과 문화가 인천의 삶에 불어넣지 못했다는 주장에 의해서 이때의 생활, 삶의 새로운 질서로서의 근대사회의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인정받았다. 그것이 관공류물시절인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공문사회(관료 사회)를 본격적으로 조형한 공창제이던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성찰적 시선을 갖고 있던 작가들 속에서 빛을 보게 되는 여건이었다. 인천이 항구근대문학의 주요 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다.

진사에서 실매를 소설의 주체로 개항은 개화부터 이 때까지 인천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다룬 것들이었다. 이 소설들을 통해 인천이 어떻게 근대도시로 성장해 왔는지, 소설이 그려낸 인천의 삶에 무엇이든 실매를 통해서도 그려낼 수 있는 무대로 인정받았다. 그것이 관공류물시절인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공문사회(관료 사회)를 본격적으로 조형한 공창제이던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성찰적 시선을 갖고 있던 작가들 속에서 빛을 보게 되는 여건이었다. 인천이 항구근대문학의 주요 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다.

연표로 보는 전사



근대소설 속 인천의 역사 이야기

근대소설 속 인천의 역사 이야기

4번 인천의 낙원 월미도

연표소설 |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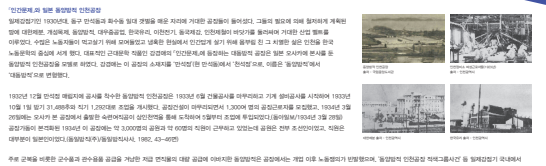
월미도는 1891년 개항과 함께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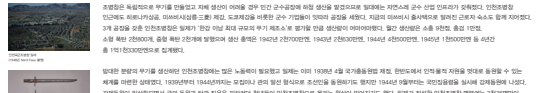
월미도는 1891년 개항과 함께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5번 공장

연표소설 |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인천의 공장은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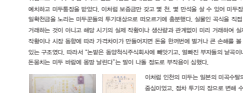
인천의 공장은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번 인천 미추취인소

연표소설 |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인천의 미추취인소는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인천의 미추취인소는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2번 하와이 이민

연표소설 |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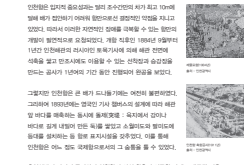
하와이 이민은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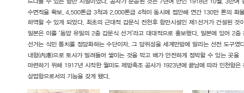
하와이 이민은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3번 인천 축항 (築港)

연표소설 |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1891.1.15



인천의 축항은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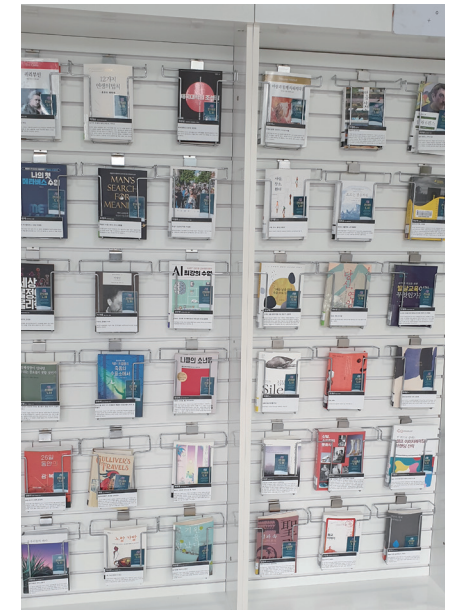


인천의 축항은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서 북쪽으로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인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휴식처로 이용되었지만,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00년대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00인의 서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인의 추천도서 전시 코너 “100인의 서재”를 운영하였다. 미추홀도서관 및 분관 강연자, 책 읽는 가족, 다독왕, 인천시 저명인사, 인천 출신 유명인 등 100명에게 도서를 추천받아 미추홀도서관과 각 분관에서 동시 전시하였다.

추천 도서와 함께 추천평을 게시하고, 가장 많이 선정된 TOP 5 도서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추천도서 목록 배포와 한 줄 감상평 코너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시민참여 이벤트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을 맞이하여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독서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100”을 주제로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를 마련하였다.

“라떼는 말이야~” 도서관 에피소드 & 타임캡슐 메시지 공모

도서관을 추억할 수 있는 행사 두 가지를 시민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첫 번째는 도서관 에피소드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100년을 기억하고자 도서관에 얽힌 추억과 이야기를 공모하였고, 두 번째는 현재로부터 100년 후 열어볼 타임캡슐에 넣고자 100년 후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추천도서를 공모받았다.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우수작에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타임캡슐은 미추홀도서관 100년 기념식 제막식 행사 시 도서관 화단에 매설하였다.

도서관 에피소드 우수작

미추홀도서관과 나의 이야기!

* 미추홀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태교를

결혼하고 만수동에 자리를 잡았다. 남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 책과 늘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터라 신혼집 정리가 되고 나서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지부터 탐색했다. 미추홀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차로 10분,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었고 게다가 인천시 대표 도서관이라는 웬지 이용자에게 더 자부심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신랑과 함께 주말에 시간이 날 때 가끔씩 전공 관련 책을 빌려 읽고, 도서관 뒤편 공원 아래 우리 부부의 최애 콩나물 국밥집(아쉽지만 지금은 다른곳으로 이전했다.)에서 뜨끈한 한끼를 먹는 것이 좋았다.

그러다 첫아이를 임신했다. 내 몸에 다른 생명체가 피어나는 생애 처음 겪어보는 낯선 경험은 초기 심한 입덧으로 찾아왔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곧 토하기 직전의 구역이 반복되었다. 그 무렵 방학이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대학 친구와 함께 하루의 긴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미추홀 도서관에 매일 다니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도서관에 와서 서가에 정갈하게 꽂혀진 책을 보기만 해도 뱃속의 울렁거림이 줄고 마음의 고요가 찾아왔다.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래된 나무의 은은한 향도 입덧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때 읽었던 책 제목이 뚜렷이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신영

복 교수님, 혹은 파울로 코엘료의 글일 듯싶다. 도서관에서 보낸 그 여름 덕분에 임신 초기의 울렁대던 몸과 불안한 마음 모두 편안히 지나갈 수 있었고, 돌이켜 보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한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태교가 되어 건강하고 영리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듯하다.

* 미추홀도서관에서 육아를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도서관에 자주 들르지 못했다. 사실 엄마로서의 경험이 처음인 나는 모든 것이 서툴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민한 아들 덕분에 육아책을 읽는 여유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다 아이가 18개월 즈음 되던 때 도서관에서하는 북스타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생애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책과 가까이하는 경험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딱 찬 꾸러미 속의 책을 받아두고, 엄마로서만 가질 수 있는 뿌듯함도 느꼈다. 매주 한번씩 자원봉사자 할머니께서 온화한 표정과 다정한 말투로 책을 읽어주시면 낮을 심하게 가리던 아이는 자기 할머니라도 되는 양 가서 안기기도 하고 집중해서 듣기도 했다.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책 놀이는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보다 훨씬 의미 있고 재밌었다. 육아에 살짝 치진 나도, 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우리 아이도 매 주 이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텅으로 수업이 끝나면 꿈나무터 이야기방에서 아이에게 책도 실컷 읽어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 아이도, 나도 커갔다.

그러다 아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 서창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서창구립도서관을 자주 찾기는 했지만, 방대한 책의 양과 도서관 내 외양의 공간이 주는 안락함, 텅으로 매점과 식당이 있다는 빼놓을 수 없는 미추홀 도서관 만의 매력은 가끔씩이라도 이 곳을 꼭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

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육아 휴직 기간 1년 동안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다고 생각해 도서관에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책을 빌려 읽었다. 아이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 생태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서관 뒤 공원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실컷 뛰놀며 탐구심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비슷한 형태가 도서관에 다 있었다. 책으로든, 프로그램으로든, 경험으로든.. 무튼 고마웠다.

* 미추홀도서관에서 나도, 아이도 계속 성장 중!

이제 아이는 4학년이 되었고, 나도 어느덧 40대로 접어들었다. 미추홀 도서관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주말에 나갈 일 없고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찾게 되는 곳이 바로 미추홀도서관이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아이들이 심심해 할 때, 꿈나무터의 다양한 책들과(특히 아이들은 만화책을 좋아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코난 DVD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책과 함께 찾아나가고 있다. 해답은 인생 책인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도 있고, 최진석의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에도 있으며, 심지어는 미하엘 엔데의 ‘모모’에도 있다. 삶의 방향의 나침반이 되는 모든 책들이 도서관에 다 있고, 앞으로도 나와 내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공간이 바로 도서관 일꺼라 믿는다. 이 아름다운 공간을 토대 삼아 나와 내 아이들, 우리 가족은 오늘도 계속 성장 중이다!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스탬프 투어

인천광역시 27개 기관 64개 도서관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 행사로, 참여도서관마다 특성을 살린 스탬프를 개별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이용자가 공공도서관 10개관 이상 방문하여 도서관별 미션을 수행하고 도서관 여권에 스탬프를 찍을 경우 2022년 도서 대출권수를 기존 5권에서 7권으로 확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100년

1922년 1월 6일 현재의 자유공원 자리의 청량각에 인천 최초의 자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인천부립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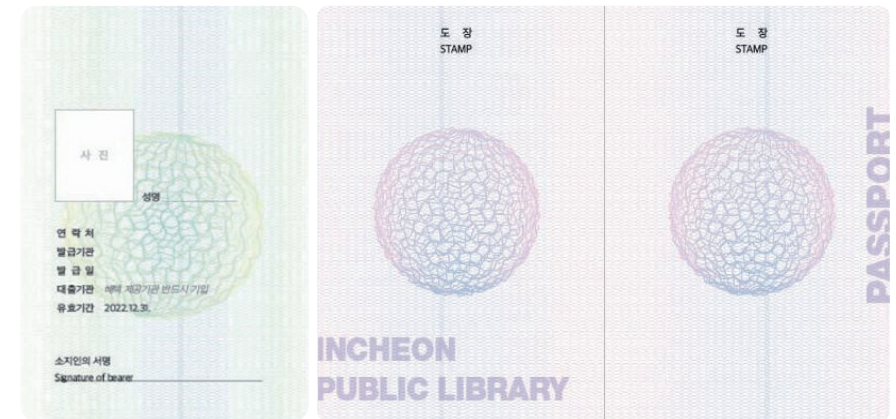
개관 100년을 맞이하는 2022년은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정한 슬로건 '100년의 多讀인 희망의 두드림'처럼 여러분이 책을 통해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다독일 수 있는 힘을 길러 어린 꿈을 향한 문이라도 두드릴 수 있도록 늘 이곳에 있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스탬프 투어 참여방법

- step 1 여권 발급**
인천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미션완료 후 스탬프 투어 여권 받기
- step 2 스탬프 찍기**
도서관을 방문하여 시그니처 스탬프를 찍고 독서하고 즐기기
- step 3 책에 신청(1개관)**
스탬프가 10개 이상인 경우 원하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권수 확대(5권~7권) 신청하기

※ 일부 구립도서관에서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여시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문의해주세요.
※ 여권 발급은 신청순이며 대출권수 확대 혜택은 2022.12.31. 까지 제공됩니다.
※ 2022년 이후에도 기념 스탬프 날인이 가능합니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미추홀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시민행사로 강화 부근리 고인돌, 대불호텔, 흥예문 등 인천의 최초, 최고(最古) 장소를 방문해서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로 인증한 참여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였다.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 출처 : 인천시 홈페이지 역사자료실

콘텐츠명	주소	시대	발생년도	지역	
1	최대 규모의 강화 부근리 고인돌	조선 이전		강화군	
2	인천의 발상지 문학산성		남구		
3	첫 번째 국제항 능허대(凌虛臺)		372	연수구	
4	가장 오래된 절 전등사		381	강화군	
5	남한 유일의 단군 관련 공간 참성단		1264	강화군	
6	개천대제와 성화 채화 마니산		1264	강화군	
7	13세기 간척의 시대를 연 강화도			강화군	
8	왕도의 공간 유일의 7대 어항(御鄕)		1389	연수구	
9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상경고금예문		1234	강화군	
10	가장 오래된 대장경 팔만대장경		1232	강화군	
11	남한 유일의 고려왕릉군		1232	강화군	
12	공자상을 처음 모신 교동향교		1289	강화군	
13	서해안 일대 유일한 국가 제사 터 원도사		1392	남구	
14	물 반 고기 반 연평파시		조선 시대		옹진군
15	왕실도서관 외규장각			1782	강화군
16	인천 유일의 학산서원			1768	남구
17	인천과 관련된 서양인 기록			1816	옹진군
18	근대 최초 조약 체결지 강화 연무당			876	강화군

콘텐츠명	주소	시대	발생년도	지역
19	축구와 야구의 도입지	조선 시대	1899	중구
20	서양과 맺은 최초 조약체결지		1882	중구
21	최초의 서양 무역회사 이화양행		1883	중구
22	개항장 행정기관 인천감리서		1883	중구
23	관세 수세 인천 해관		1883	중구
24	국제도시의 상징 인천 외국인묘지		1883	연수구
25	유일의 외국인 전용 거주지역 각국조계		1884	중구
26	화교사회의 시작 청관		1884	중구
27	양관의 효시 세창양행 사택		1884	중구
28	우체국의 효시		1884	중구
29	우리 호텔 130년 역사의 시작 대불호텔		1885	중구
30	인천상공회의소의 효시 신상협회		1897	중구
31	감리교의 출발 내리교회		1885	중구
32	근대 상업광고의 출발 세창양행 광고		1886	중구
33	근현대사의 타임캡슐 각국공원		1888	중구
34	천주교 답동성당		1889	중구
35	인천에 최초의 해외지점을 둔 일본제18은행		1890	중구
36	랜디스가 건립한 성누가병원		1890	중구
37	신식 화폐를 만든 인천 전환국		1888	중구
38	스팀 동력 정미기 담손이 방앗간		1892	중구
39	초등교육의 기원 영화학당		1892	동구
40	민간해운업의 효시 이운사		1893	중구
41	대한제국 군함 양무호		1903	해당없음
42	해군사관학교의 시작 조선수사해방학당		1893	강화군
43	보육기관의 효시 해성보육원		1894	중구
44	김구를 살린 전보 그리고 최초의 시외전화		1894	중구
45	근대 예술 공간 협률사		1895	중구
46	선물시장의 시작 인천미두취인소		1896	중구
47	외국인 관련 사건 재판의 시작 개항장재판소		1895	중구

콘텐츠명	주소	시대	발생년도	지역	
48	소년 운동의 선구 엽서청년회	조선 시대	1897	중구	
49	조선인 어시장 인항어상회사		1899	중구	
50	기공식을 두 번 한 경인철도		1899	동구	
51	한옥으로 지은 성공회 강화성당		1900	강화군	
52	최초 외국인들의 사교클럽 인천제물포구락부		1891	중구	
53	선박의 입출항 알렸던 예포(禮砲)		1891	중구	
54	인천에서 담배 제조의 시작		1902	중구	
55	한인 디아그프라의 출발 하와이 이민		1903	중구	
56	밤 바다의 길잡이 팔미도 등대		1903	중구	
57	민간이 세운 제령학교		1903	중구	
58	무선시설을 갖춘 광제호		1904	해당없음	
59	민족계 은행지점 천일은행		1899	중구	
60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1905	중구	
61	아라뱃길을 만든 경인운하 계획		1905	해당없음	
62	대낮처럼 밤을 밝힌 인천전기(주)		1905	중구	
63	해인가에 즐비했던 붉은 벽돌 쌀 창고		1906	중구	
64	정오를 알리는 오포		1906	중구	
65	조선인을 위한 인천공립보통학교		1907	동구	
66	천일염의 원조 주안염전		1907	서구	
67	무지개를 닮은 홍예문		1908	중구	
68	우물을 대신할 상수도시설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일제 강점기	1910	동구
69	최초의 경제 월간지 상계월보			1912	중구
70	20세기 초 짜장면과 짬뽕				중구
71	묵은 때도 깔끔하게 비누			1912	중구
72	도로의 기점 인천도로원표			1914	중구
73	해발의 기원 수준원점			1913	남구
74	최초의 인공항만 갑문	1911		중구	
75	인천의 성냥공장 인촌성냥	1917		동구	
76	젊은 지성의 요람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	1919		동구	

콘텐츠명	주소	시대	발생년도	지역
77	청주 제조와 병술 약주	일제 강점기 (임시 정부)	1920	중구
78	해수탕의 원조 월미도 조탕		1920	중구
79	최초의 공설운동장 윗터골		1920	중구
80	공공도서관의 출발 인천부립도서관		1921	중구
81	한글 점자 훈맹정음		1926	남구
82	천문 관측도 했던 인천기상대		1904	중구
83	추억의 꼬마열차 수인선		1937	연수구
84	병참기지로 시작된 경인공업지역		1937	동구
85	미군기지 에스컴		1945	부평구
86	최초의 공립 인천부립박물관		1946	중구
87	광복 후 우리 말 신문 대중일보	1945	중구	
88	6.25전쟁의 대반전 인천상륙작전-녹색해안	대한 민국	1950	중구
88	6.25 전쟁의 대반전 인천상륙작전-적색해안		1950	중구
88	6.25전쟁의 대반전 인천상륙작전-청색해안		1950	남구
89	우리 손으로 만든 새나라 자동차		1962	부평구
90	해외복음 전파방송의 시작 국동방송		1956	남구
91	유리도 우리 손으로 인천판유리		1956	동구
92	화약의 국산화 한국화약		1957	남동구
93	굴다리에서 시작된 지하도상가		1963	중구
94	고속도로의 효시 경인고속도로		968	서구
95	매콤 달콤한 쫄면			중구
96	하늘로 세계로 인천국제공항		2001	중구
	인천 또 하나의 미래 경제자유구역 - 송도		2003	연수구
97	인천 또 하나의 미래 경제자유구역 - 영종		2003	중구
	인천 또 하나의 미래 경제자유구역 - 청라		2003	서구
98	동북아 경제 인프라 인천대교		2009	연수구
99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		2013	연수구
100	하늘로 하늘로 동북아무역타워		2012	연수구

100이 외치는 소리

미추홀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시민행사 ‘100이 외치는 소리’는 이용자가 추천하는 책의 100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진으로 게시하면 심사 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이다.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 시민참여 이벤트

1. 인천시 공공도서관 스탬프 투어 7/4(월) - 12/31(월)

1

도서관
여권 발급

2

스탬프
찍기
(10개년 이상)

3

혜택 신청
(대용7개
7개년)

* 여권발급은 선착순이며 혜택 제공은 2022.12.31. 까지입니다.
* 일부 구립공공도서관에서는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문의해주세요.

2. 인천최초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7/4(월) - 11/30(수)

인천의 최초最初, 최고最古 장소를 방문하여 사진인증시 모바일 상품권 증정(매일 1명 선형)

-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 #인천최초최고100
- 네이버 폼 naver.me/xMUpOy3u
- * 단 현존하거나 복원한 장소에 한정 (강화 고인돌, 대동호정, 용매문 O / 인천마두어인소, 자당연, 용만 시
- * 한국최초 인천최고 리스트 (해부할참고) → 중복지원 금지

3. 100이 외치는 소리 7/4(월) - 11/30(수) **4. 키워드를 찾아라** 7/4(월) - 소진시

추천하고 싶은 책의 100쪽에서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 사진 인증시 자료실에서 '인천', '도서관', '100년' 등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관련 모바일 상품권 증정(매일 1명 선형) 도서 속 쿠폰 찾기(기념 편지지 송정)

- 네이버 폼 naver.me/xnyOEFX7
- * 중복지원 금지

5. 내가 만드는 대출기록카드 책갈피 7/4(월) - 소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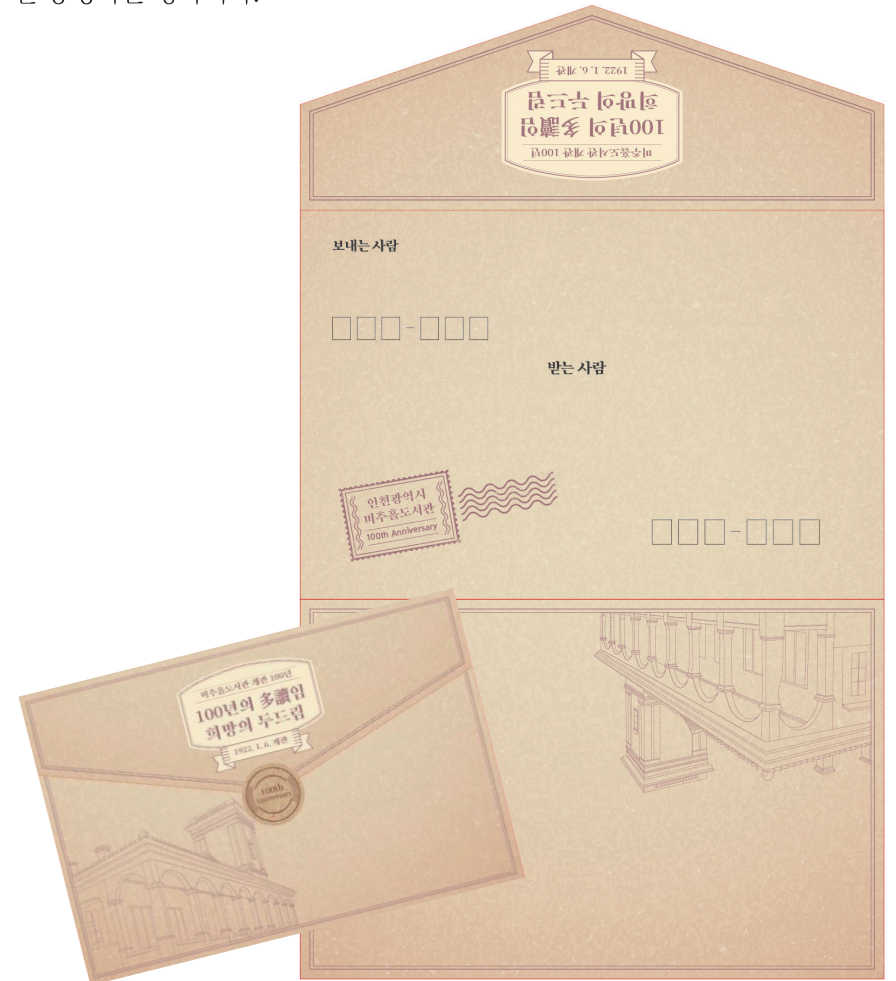
자료실에 비치된 대출기록카드와 날짜도장을 활용하여 나만의 독서기록장 겸 책갈피 만들기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키워드를 찾아라

미추홀도서관과 5개 분관(청라호수·영종하늘·청라국제·마전·송도국제기구)이 함께 추진한 ‘키워드를 찾아라’는 3개의 키워드 ‘인천, 도서관, 100년’으로 각각 검색되는 책에 경품 쿠폰을 넣어두고 찾은 대출자에게 제작 편지지 등 홍보물을 증정하는 행사이다.



내가 만드는 대출기록카드 책갈피

미추홀도서관과 5개 분관 자료실에 과거 사용하던 대출기록카드를 본뜬 책갈피와 카드봉투를 제작·비치하여 이용자가 방문날짜 도장을 찍고 서명을 적는 등 추억의 대출기록카드를 직접 작성해보는 이벤트이다.

이름:			대출일	도서명	반납일
독서기간:					
대출일	도서명	반납일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벌써 100년!

영종하늘도서관에서 진행한 행사로 인천의 지역대표도서관, 분관의 개관년도 등 미추홀도서관의 역사를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맞춘 정답자를 추천하여 미추홀북 등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개관 100년 기념 책이음 회원카드 제작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 책이음 회원카드를 한정 제작하여 행사 등에 활용하였다.

책이음 홈페이지: Libraryone.nl.go.kr

책이음카드 이용안내

이 용 이 카드 한 장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참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 참여 공공도서관은 책이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분실/손실 이 카드를 분실/손실하신 분은 아래 발급 도서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책 임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 급 홈페이지: <http://www.michuholib.go.kr>

도 서 관 전화번호: 032)462-3900-1
휴 관 일 :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

회원번호 :
성 명 :



특강 '인천의 도서관 역사를 찾아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와 도서관 선구자로 활약한 인천의 인물들을 알아보고, 근대도시 인천과 도서관 100년의 길을 직접 걷고 체험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9월 14일, 9월 17일 운영하였다.

탐방은 한국근대문학관을 시작으로 청일조계계단,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인천부립도서관 옛터, 애관극장, 답동성당, 인천부립도서관 이전 터, 율목도서관을 중심으로 약 3시간 도보로 진행하였으며 도서관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since 1922-2022



참고자료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since 1922-2022



참고자료

인천시립도서관(現 미추홀도서관) 연표

연도	주요 사업	비고
1920년대	- 1921.11.01. 인천 부립 도서관으로 설립	설립 부립도서관
	- 1922.01.06. 중구 송학동 청광각에서 개관(현 자유공원 내)	
	- 1922.01.06. 설비료 日貨 31,000원, 장서 900권으로 최초의 개관	개관
1930년대	- 1933년까지는 무료였으나,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이후로 유료화	
1940년대	- 1941.04.10. 구 인천지방법원 청사로 이전	
	- 1945.09.11. 초대 구연하 관장 임명	
	- 1946.11.04. 울목동 24번지 일본인 별장을 개수하고 이전키로 확정	
	- 1946.12.02. 중구 울목동으로 이전	
- 1949.08.15. 시(市)제 시행으로 인천시립도서관으로 개칭	인천부 → 인천시	
1950년대	- 1950.06.25. 무기휴관	
	- 1958.11.05. 인접 성산교회 부지 377.1평을 시유지와 교환하여 관부지로 편입	
	- 1958.11.06. 인천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정	조례제정
1960년대	- 1962.04.30. 신관 기공식	
	- 1962.09.15. 신관 신축 개관	
	- 1962.10.27. 구관에 어린이 열람실 부설, 열람 개시	
	- 1963.09.16. 제2회 전국공공도서관대회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1990년대	- 1991.05.11. 희망도서함 설치, 도서목록의 전산화, 열람책상 칸막이 설치	
	- 1992. 열람실 무료 개방	
	- 1993.02.08. 인천도서 100년전 도서전시(구 시민회관)	
	- 1994.05.07. 관외대출 확대 실시	

연도	주요 사업	비고
1990년대	- 1997.01. 조직개편(1사업소 2개팀)	
	- 1998.09. 표준도서관리 시스템 KOLAS I 구축	
	- 1999.08.09. 16대 사서 도서관장 정문희 취임	
	- 1999-2000 한서, 일서, 양서 목록구축	
2000년대	- 2000.08.01.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설	홈페이지 구축
	- 2001.05.14. 도서분실 방지 시스템 설치	
	- 2001.06.28. 표준도서관리 시스템 KOLAS II 구축	
	- 2003.04.05. 디지털로실 개설	
	- 2004.09.01. 장애인 도서택배서비스 실시	
	- 2004.09.04.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2008.01.31. 시립도서관 소장 고서 해제집 발간	
	- 2008.04.01. 인천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 2008.12.12. 미추홀도서관 민간 투자시설 준공	
	- 2009.02.25. 조직개편 및 미추홀도서관 명칭 확정	미추홀도서관 2과4팀
- 2009.04.06. 지역대표도서관 조례제정	대표도서관 조례	
- 2009.06.23. 미추홀도서관 개관, UN기탁도서관지정-운영 표준도서관리 시스템 KOLAS III 구축 E-Book, WebDB 서비스 실시		
- 2009.11.17. 인천공공도서관협의회 창립 총회		
2010년대	- 2010.01.27. 도서관 전문인력 직무교육 시행	
	- 2010.01.02. UN기탁도서관 소장 국내자료 관외대출 실시	
	- 2010.01.25. 지역신문 및 향토자료 온라인 원문DB 서비스 실시	
	- 2010.02.25. 인천공공도서관협의회 총회	
	- 2010.03.02. 조직개편(2과5팀)-평생학습팀 신설	
	- 2010.04.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구축	
	- 2010.04.01.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	위원장 : 시장
	- 2010.04.07. 도서관과 함께 책임기 운영	
	- 2010.05.03. 자료예약서비스 실시	
	- 2010.07.15. 과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2010.09.13. 장애학생 직업현장 실습프로그램 실시	미추홀학교
	- 2010.10.07. 순회문고 '책(冊)나들이' 실시	
	- 2010.10.23. 길 위의 인문학 운영	
- 2010.11.2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	

연도	주요 사업	비고
2010년대	- 2010.12.09. 인천지역 북스타트 도입 설명회	
	- 2011.01.0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시행	23개 도서관
	- 2011.02. 인천광역시 북스타트 사업 시행	
	- 2011.03. 독서회(꿈드림, 토크톡, 미추홀글동네) 개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
	- 2011.06.23. 관외예약대출서비스 '책마중' 실시	1층, 예술회관역
	- 2011.08.01. 오디오북 서비스 실시	
	- 2012.02.23. 제44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한국도서관협회
	- 2012.05.24. 인천시 북스타트 선포식 및 사업 운영	
	- 2012.08.10.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 2012.10.17. 2012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기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 2012.11.15. 제5회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최우수상	국립중앙도서관
	- 2012.12. 교과연계도서목록집 창간호 발간	
	- 2012.12.31. 통합도서관서비스 참여기관 31개관 확대	시, 군·구, 교육청
	- 2013.09.17. 조직개편-운영지원부, 정보정책부, 문헌정보부	2과→3부
	- 2013.12.19. 송도국제기구도서관 개관 (UN기탁도서관 이전)	분관 개관, 정보정책부 소속으로 운영
	- 2014.01.13. 다국어자료실 개설	
	- 2014.03.19. 오색실 동화책 독서회 개설(성인 대상)	
	- 2014.09. 인천시공공도서관협의회 우수 운영사례 공모사업 시행	
	- 2015.02.04. 통합도서관서비스에서 책임 서비스로 명칭 변경	
	- 2015.06.23. 광저우대전 공개(520권)	광저우시 기증
	- 2015.06.29. 청라호수·청라국제도서관 개관	분관
	- 2015.07.10. 영종하늘도서관 개관	분관
	- 2015.07.15. 조직개편(3부→3부 3분관)	
	- 2015.11.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 오픈	
	- 2015.12.22. 2015 미추홀북 선포식 개최	
	- 2016.02.15. 본·분관 통합 강사선정위원회 개최	
	- 2016.03.09. 웅달샘 독서회 개설(장애인 대상)	
	- 2016.03.30. 가치함께도서관(치매코너) 운영	
	- 2016.04.20. 책임서비스 참여기관 66개관 확대	
	- 2016.05.17. 청라호수, 청라국제, 영종하늘 홈페이지 개설	
- 2016.10.08. 2016 미추홀북 선포식, 인천사랑 책사랑 페스티벌 개최		

연도	주요 사업	비고
2010년대	- 2016.12.07.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	위원장 : 행정부시장
	- 2016.12. 평생학습프로그램 작품집 '모이작(作)' 창간호 발간	
	- 2017.07.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기능개선	
	- 2017.10. 인천문학작가 코너 운영(김영승 시인)	
	- 2017.10.28. 2017 다북다북 페스티벌 개최	인천사랑 책사랑 페스티벌 명칭변경
	- 2017.12. 인천광역시 통합전자도서관 시행	47개관 연계구축
	- 2017.12. 통합(타관) 검색시스템 실시	참여기관 55개관
	- 2018.01.31. 문화가 있는 날 도서대출 2배로 데이 실시	
	- 2018.04. 인천문학작가 코너 운영(김종미 작가)	
	- 2018.08.31. 제24회 독서문화상 (2018 독서문화진흥 유공자상) 장관상 수상	
	- 2018.12.03.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지정	
	- 2019.02. 인천시 책바다서비스 택배비 지원 사업 운영	
	- 2019.04. 인천문학작가 코너 운영(양진채 작가)	
	- 2019.07.08. 어울림터 개설 (미추홀터, 다국어자료실 통합)	명칭 및 구조 변경
	- 2019.08.07. 부서 업무조정(정보정책부-지역대표도서관 업무, 행사 및 강좌 / 문헌정보부-장서확충 및 자료실 운영)	송도국제기구도서관 문헌정보부 소속으로 운영
	- 2019.11.21. 마전도서관 개관, 조직개편(3부 3분관→3부 4분관)	
	- 2019.12. 웹기반 통합도서관리 시스템, 지능형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	ALPAS, 책마중 스마트도서관, 북드라이브
	- 2020.01.02. 전국 최초 북드라이브 서비스 실시	청라호수공원
	- 2020.03. 미추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본관 및 분관
	- 2020.04. 코로나19 관련 휴관 중 예약도서대출서비스 운영	4.8.~5.4.(1차) 6.2.~6.19.(2차)
- 2020.04. 인천문학작가 코너 운영(장석남 시인)		
- 2021.04. 인천문학작가 코너 운영(이원규 작가)		
- 2021.04.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시범운영	남동구 7개 서점	
- 2021.05.10. 예약도서 신청 및 DVD대출 확대 (1권 1점→2권 2점)		
- 2021.10.01. 도화 2·3동 스마트도서관 시범운영	도화 2·3동 행정복지센터	
- 2022.01.06.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식 제막		
- 2022.06. 스마트도서관 확장 구축 (미추홀·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		
- 2022.10.01. 2022 다북다북 인천 페스티벌 개최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서 명 :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년 기념사업 자료집

발행인 :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장 신순호

발행일 : 2022. 12.

발행처 :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편 집 : 미추홀도서관 정보정책부